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2009 부활의 기쁨...회복과 희망을 선포



새벽을 깨우는 찬양과 기도소리가 서울역과 전국각지에 울려 퍼졌다.
희생의 유전자 섬김으로 되살려 다시 일어나 희망을 노래하라
12일 부활절 새벽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 새벽 찬바람을 가르며 서울과 경기도 등지에서 몰려든 3만여 크리스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송축하며 한마음으로 희망을 노래했다. 이날 세대간의 갈등과 반목은 물론 교단·교파를 초월한 하나가 됐다. 경제 한파에 위축된 마음도, 정치·사회·경제적 이슈를 바라보는 가치관 차이도 없었다. 다시 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놀라고 행복해 하던 초대교회 크리스천들처럼 새로운 꿈과 비

전을 소망하는 모습만 가득했다.

2009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를 공동 주최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회장 김삼환 목사)와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엄신형 목사)에 소속된 목회자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하나임을 재확인한 부활의 아침이다.

이날 명성교회 오케스트라와 구세군 군악대의 연주, 명성교회 사랑의 교회 친선성결교회 등 19개 교회 2009명으로 구성된 연합성가대의 '살아계신 주' 찬양을 들으면서 부활의 산 소망을 가슴에 품고 하나가 되는 감동이 무엇인지 느낄 수 있었다며 참석자들은 입을 모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다. 게다가 무대 뒤편에는 성 삼위일체이자 '희망의 빛'을 상징하는 빨강 파랑 흰색 등 3개 대형 서지라이트가 새벽하늘을 수놓아 장관을 연출했다.

권오성 NCCK 총무 사회로 시작된 예배에서 김삼환 NCCK 회장은 대회사로 통해 "행동 없는 이 시대에 함께 일어나 희망으로 노래하자"고 호소, 엄신형 한기총 대표회장은 "교회가 사회의 희망과 생명의 통로가 되고, 절망과 사회에 신음하는 모든 자에게 희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자"며 환영사에 나섰다. 이날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목사의

대표기도와 오정현 사랑의교회 담임목사는 '한국교회여 다시 희망을 노래하라'란 제하의 말씀에서 "한국교회가 자기 회생의 유전자를 되살려 민족의 새판을 짜기 위해 일어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붙잡았던 초기 세계교회의 영성과 인구의 2%에 불과한 그리스도인으로 민족을 살린 초기 한국교회의 각성과 소명을 본받자고 호소했다. 오 목사는 "북한 동포를 위해 말없이 물질과 재능을 가장 거룩하게 낭비한 사람이 되고, 장애인들을 위해 눈물과 사랑과 헌신을 바치는 자발적 고난, 자기 희생, 섬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때 이 시대의 희망이 되는 소명자도 우뚝 설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박성배 (기하성 총회장) 오덕교(전 합동신학대학원대 총장) 이용호(예장 고신 총회장) 양병희(영안교회) 목사 등이 각각 부활과 나눔을 위한 기도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세계 평화와 지구를 위한 기도', 김광준 대한성공회 교무원장과 권순직 한기총 총대행이 남북교회 공동 기도를 문 낭독했다.

또한 고수철 감리교 감목회장, 손인웅(목수교회) 김요섭(선린교회) 지형은(성락성결교회) 목사의 집례로 성만찬 예전을 가졌으며, 이날 헌금 전액을 사회적 약자인 고령받는 남북한 어린이들을 위해 사용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이날 예배를 마친 후 한국교회봉사단, 사랑의교회, 구세군브릿지센터, 거리의 천사들 주관으로 500여명이 서울역을 찾아 노숙인 1천여 명에게 식사와 함께 부활절 계란을 나누면서 한국교회 크리스찬들의 사랑을 전하며 위로했다.

한편 부활절 연합예배는 대전과 광주, 목포, 부산, 인천, 춘천 등 전국 도시 읍, 면에서 일제히 드러졌다.

한기총 부활절 메세지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는 곳에는 생명의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계신 곳에 사는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슬픔에 지친 자들이 위로를 받았으며 소외된 자들이 영접되고 죽음의 세력은 축출됩니다. 이러한 치유와 위로 그리고 용서와 구원은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생명이며 근본적인 희망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사회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2천 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력자와 부유한 사람들이 아닌 소외된 자들과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세상 안에 있는 교회'가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기 보다는, 새로운 가치관을 신념으로 삼아 '세상에 속하지 않은 교회'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고통 받는 이웃과 파괴되어 가는 세계를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는 오직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나, 그 죽음으로부터 다시 일어나신 그리스도의 능력과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만 한국교회는 하늘의 질서를 이 땅 위에 실현하려는 시도를 구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사회의 희망과 생명의 통로가 되는 것이 신자 개개인의 능력이나 잠재력에 달려있지 않다는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사회는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던 인간의 탐욕이 빚어낸 세계적 경제위기와 이로 인한 충격으로 심각한 가정경제 그리고 공동체붕괴의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와 기독교인들에겐 전적으로 새로운 가치와 삶으로 방향전환을 요구하는 경조이기도 합니다.

2009년 부활절은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를 가슴에 새기며, 절망과 소외에 신음하는 모든 자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내면에 뿌리박힌 탐욕과 교만을 제어하고 이웃의 고통과 필요에 시선을 돌리는 자기 혁신의 기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부활절을 통해 바로 이러한 감격과 체험의 간증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기원합니다.

2009년 부활절에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엄신형 목사

장애인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



2009 한국장애인선교 EXPO 대회 열어

(사)한국장애인선교단 총연합회(이하-한장선)는 창립 23주년을 맞아 '2009 한국장애인선교 EXPO'대회를 '장애인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란 주제로 3일 올림피아공원 내 올림피아홀에서 개최했다. 5부로 나누어 진행된 행사에서 1부 김용원 목사 사회로 개회예배가 시작되고 정권 목사(대회장)의 개회사와 박창진 목사(평에 대회장)가 기도, 황준환 목사(한내 위원장)의 성경봉독(요 3:14-16, 소강석 목사(새내면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란 제하의 말씀을 선포하고 최병남 목사(예장 합동 총회장)가 축도했다.

2부 선교기념대회에서 김자현 목사(대표 대회장)는 "장애가 불편한 것은 사실이라며 그렇다고 해서 인생을 포기하거나 절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하고

또 장애인 엑스포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꾸준히 열리고 더욱 발전해 갈 것과 장애인 선교의 사명을 다져 한국교회 내 장애인 선교의 위상을 높이고 한국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우리 사회에 성경적 장애인관을 확고히 다지는 계기가 되길 요청했다.

이어 대회장 정권 목사는 기념사에서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사랑에 힘입어 엑스포가 열리게 되었다"며 축하하고 "하나님께서 기독교 공동체 위에 위임하신 일이 하나 있는데 약자를 돌보라는 명령"이라며 "이 명령을 받들어서 한장선은 한국교회와 더불어 이번 엑스포를 통해 장애인들을 깨우고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준비위원장 최경열 장로는 선교의 뜻을 모은 모든 선교단체에 감사를 전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세우가기 위한 선교사역에 있어서 성경적 가치관과 긍정적인 사고로 미래 지향적인 선교상을 그리는 새로운 모토로 한장선엑스포에 기대한다며 선교사역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다짐하고 만들어 주심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또 홍보위원장 조재훈 목사가 비전선포를, 한기총 대표회장 엄신형 목사, 기사현 대표회장순인용 목사, 일본 나고야시 신계장애인연합회 대표이사 사무이사,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 민주당 박은수 의원 등이 축사에 나섰다.

3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성회'는 (한회 연 사무총장)박원영 목사 사회로 대표기도에 (한회 연 공동대표)박철규 목사, (한회 연 공동대표)정주채 목사가, (한회 연 상임대표의 장) 최우우 목사가 희망의 메시지를, (한회 연 상임대표) 이철진 목사가 축복의 메시지를, (한회 연 상임대표) 양병희 목사가 비전의 메시지를, (한회 연 상임대표)정삼자 목사가 약속의 메시지를 전하고 나라와 민족, 장애인 선교, 한국 장애인복지, 한국교회 부흥,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한회 연 공동대표)최영민 목사, (한회 연 상임대표)한대수 목사, (동원 위원장) 김광식 목사, (영동제일교회) 송기성 목사, 수



원(예교회) 임영성 목사가 기도했다.

이어진 4부 희망콘서트에서는 두들소리의 난타 공연을 시작으로 에이벤, 코리아나 이애숙, 동방현주, P.K, 소향, 희망새, 신형원 등이 화려한 무대를 장식했다.

또 5부 장애인선교발전 세미나에서 김종인 교수(나사렛대학교)가 '사회복지 관점에서의 장애인 선교'를, 이재서 교수(세계밀알연합총회)가 '신구약 성경을 통한 장애인의 이해'라는 주제로 각각 주제를 발표하고, 김철 목사(나그네집 대표)를 좌장으로 김해용 목사(한국 장애인 사역연구소), 이재은 교수(나사렛대학교 겸임교수), 김광원 목사(신앙애복복지단 대표)등이 패널로 나와 워크숍을 가졌다.

2009년 소진우 목사 부흥성회 일정

한 해 동안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교회와 동역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1월 3 안양갈매산금식기도원(임예제위원장)
5-8 일산금관교회(주성민목사)
12-14 흥산교회(김양섭목사)
19-21 갈릴리교회(오덕주목사)
26-30 필리핀선교집회

2월 2-5 해방기도원(백재욱위원장)
6 안양갈매산금식기도원(임예제위원장)
9-11 옥산성경결교회(박병정목사)
16-18 칠곡연합성회(김상호목사)
23-25 대전소망교회(조성봉목사)

3월 2-4 도원교회(유순기목사)
축복대심방

4월 6-8 목양교회(주화순목사)
13-14 정기노회
14-16 이루리교회(이재경목사)

20-23 남양주시기독교연합성회
27-29 광성교회(임대은목사)
5월 4-7 에스라선교재자훈련센터(이진희위원장)
10-13 봄철축복성회(예복교회)
18-21 미쁜교회(이봉현목사)
25-27 선교지방문

6월 1-4 인천마가다락방기도원(박보영목사)
7-10 새롬교회(김대수목사)
11 한빛교회(임선택목사)
15-17 청주기도원(강성진위원장)
22-24 완도순복음교회(정정환목사)
26 임마누엘수양관(이수영위원장)
29-1 외국교회(장보웅목사)

7월 3 성소기도원(박정원위원장)
5-8 새영교회(이영근목사)
13-15 산성교회(김장남목사)
20-22 은헌기도원(조은위원장)
27-30 임마누엘기도원(김순숙위원장)

8월 3-6 한열산기도원(이영금위원장)
10-13 예바다응답기도원(최민숙위원장)
17-20 천문기도원(최정숙위원장)
23~25 심야특별대성회(예복교회)

9월 7-11 온누리복음회수양회(엄기호)
14-16 열방교회(신보현목사)
21-24 교단총회
28-3 추석주간

10월 12-13 정기노회
13-15 서북교회(배경탁목사)
18-20 생명의교회(백구식목사)
25-28 영광감리교회(류인덕목사)

11월 2-3 신원교회(맹조영목사)
9-11 임마누엘교회(김경정목사)
16-18 선교지방문
23-25 경일교회(박조일목사)

12월 7-9 신성교회(김병진목사)
14-17 해방수양관(백재욱위원장)
20-23 한마음교회(신규대목사)



강사 소진우 목사
010-5267-1434

- 로고스 세계부흥선교회 부총재
- 열방부흥선교회 대표회장
- 극동방송 컬럼리스트
- 지저스타임즈 사장
- 예복교회 담임



대한예수교
장로회
YEBOK PRESBYTERIAN CHURCH



서울시 노원구 상계1동 1265번지
전화 : 02-3391-9676 / 010-5267-1434



제3대 사단법인 민족복음화 운동본부 취임감사에배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총본부장 이원호목사, 대표회장 설동욱목사, 부총재 및 총강사단장 김영남목사, 본부장 72명의 취임식이 있었다. ‘한국에 제2의 선교 전성기가 오게 하자’는 취지로 설립하고, 한국교회 부흥운동에 견인자 역할을 해온 민족복음화운동본부(총재 이태희 목사, 사무총장 박복우 목사)가 3월 27일 오후 3시 성복교회(담임 이태희 목사)에서 성도들이 성전을 가득 채운 가운데 제3대 취임감사에배를 드셨다. 금번 취임에 총본부장으로 이원호 목사(소양교회), 대표회장 설동욱목사(서울예성교회), 부총재 및 총강사단장에 김영남목사(새소망교회)와 72명의 본부장들이 취임을 가졌다. 이날 취임감사에배는 실무본부장 임성은 목사의 사회로 제1부 취임감사에배가 진행되었는데 수석상임본부장 김기대 목사의 대표기도 후 총재 이태희 목사는 ‘내 민족을 향한 외침’이라는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이태희 목사는

“이슬람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며, 그 어느 때보다 한국교회가 위기인 이때 우리는 심령을 변화시키고 회개운동을 불러 일으키는 말씀을 선포해야 할 것이다”라고 하며 아울러 “우리 민족이 힘이 있어야 타 민족도 복음화 할 수 있다”고 전하고 민족복음화를 위해 먼저 우리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부총재 이효은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제2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국기도회에서는 나라와 민족의 감사가도(김신관 목사), 나라와 민족의 회개기도(김성갑 목사), 나라와 민족의 축복기도(오규섭 목사), 나라와 민족의 안보기도(조성철 목사), 한국교회와 민족복음화를 위한 기도(이기안 목사) 순으로 목사의 사회로 제1부 취임감사에배가 진행되었는데 수석상임본부장 김기대 목사의 대표기도 후 총재 이태희 목사는 ‘내 민족을 향한 외침’이라는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이태희 목사는

총재 이태희 목사는 취임패를 증정하고, 이어 예정활동 직전총회장 김용실 목사의 축사와 한기총 증경회장 이만신 목사, 지덕 목사 등이 권면하고 부총재 최재우 목사와 강문호 목사의 격려사가 있었다. 총본부장 이원호 목사는 취임사를 통해 “민족복음화를 위해 큰일을 맡겨주신 것을 감사하고 앞으로 더 많은 기도를 부탁한다”는 말씀과 대표회장으로 취임한 설동욱 목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뜻 깊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라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부총재 및 총강사단장 김영남 목사는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기도와 복음 전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써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앞으로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였다. 이어진 하늘소리국악찬양단(소양교회)의 구성진 국악가락의 찬양 축가는 민족복음화에 대한 사명을 불태우기에 충분하였고, 고문 이만신 목사의 축도로 취임감사에배를 마쳤다. 민족복음화운동본부는 1977년 여의도광장에서 열린 ‘77민족복음화대성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고 후속사업으로 17개 교단 300여명의 목회자들이 모여 발족되었으며, 다양한 사역을 통해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복음화 하는 일에 앞장서 왔다. 앞으로도 민족복음화운동본부를 통해 민족신앙을 불어넣고 영을 깨우는 복음단체가 될 것을 기대한다.



「오교협」제9대 대표회장 이철재 감독 취임감사에배

“이 나라 이 민족을 무속사상으로부터 출애굽 시키자”



한국오순절교회협의회(이하~오교협)는 제9대 대표회장 이철재 감독을 연임케 하고 취임감사에배와 성서수련원, 이천금식기도원 임당감사에배를 지난 3월 29일 주일 오후 4시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주박리 353-5 소재에서 동시에 드셨다. 서울성서교회 담임 이정민 목사 인도로 예배가 진행되고 전 세계 목사(연능교회) 기도와 정병돈 목사(성온교회)가 성경봉독을 맡았으며, 글로리아와 선교단의 특송에 이어 엄기호 목사(성령교회)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엄 목사는

이천지역에 하나님의 성산, 성서수련원 이천금식기도원 임당감사에배와 오교협 제9대 대표회장 취임하는 이철재 감독을 축하하고, 팝 홀리며 수고한 성도들을 크게 격려했다. 이어 오호철 목사(포도원교회)가 봉헌기도를, 고병수 감독(기독교한국하나님의교회 감독)이 축사를 하고, 이철재 감독(기독교한국성서하나님의교회 감독)이 인사에 나섰으며 직전 대표회장 엄기호 목사는 대표회장 이철재 감독에게 취임축하패를 증정하고 축도로 마쳤다. **〔한국오순절교회협의회 창립취지문〕** 20세기 초의 오순절운동은 신앙운동이지 신학운동은 아니었다. 루터나 칼빈 등 개혁자들의 종교개혁이 성서해

석상의 문제로부터 출발한 일종의 신학운동인데 비하여 오순절운동은 체험적이며 살아있는 신앙현상이 그 출발점이었다. 이런 의미에서 오순절운동은 목회 측면에서 먼저 접근하여 오순절신학의 정체성을 세워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다양화와 소그룹전문화시대이다. 따라서 오순절교회의 분명한 색깔을 내야하며 종교다원화의 혼합주의적 영향으로부터 오순절교회의 순수한 성령운동을 구분하고 지켜 나갈 절대적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세계 선교사적 측면에서 보면 21세기는 오순절교회시대가 될 것이다. 실제로 로마 카톨릭교회 다음으로 교세가 큰 데가 오순절교회이다. 이러한 역사적 소명에 부응할 수 있는 선교적 전략을 수립할 시점에 와 있으며 지난 100년간 지속되어 온 서구 식민주의적 선교행태를 바꾸어야 한다. 한국오순절교회가 힘을 합쳐 이를 시정하고 올

바른 세계 선교의 방향을 모색할 책임이 있고, 또한 능력도 있다고 본다. 초대교회의 오순절운동이나 20세기 초의 오순절운동의 공통점은 성령 안에서 모든 벽, 즉 인종, 성별, 신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계층 간의 벽이 무너지 성령 안에서 형제요 자매로 하나 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교회는 확립적 조직의 영향으로 교회가 계급화 되어 있다. 이런 교회의 조직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안에서 하나 되는 순수한 신앙공동체로 바꾸어야 할 책임이 오순절교회에 있다고 본다. 끝으로 한국적 무당문화를 기독교문화로 바꾸기 위해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해야 할 때라고 본다. 여기에 오순절교회 및 성령운동에 참여하는 모든 교회가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모으기 위해 오늘의 한국오순절교회회의를 창립하게 된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명령이다. **〔2001년 2월 23일〕**

기하성 제57회기 제2차 임시총회 가져

지방총회 및 지역총회 헌법개정안 등 통과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이하~기하성) 대표총회장 조용목 목사는 지난 4월 2일 오전 11시 제57회기 제2차 임시총회를 은혜와진리교회 수양관에서 가져 지방총회 및 지역총회 헌법개정안 등을 통과 시키는 등 주요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초대형규모의 교회에 대한 지방총회 설립이 가능하게 됐다. 이날 1부 예배에 교단서기 윤기석 목사가 맡았으며, 국내총회장 김상용 목사의 대표기도, 교단총회장 김석산 목사의 성경봉독, 대표총회장 조용목 목사는 ‘절망과 희망’이란 제하의 설교를 통해 지난 “3년 여 기간 동안의 교

회게 행하고 의를 실현하기 위해 분연히 일하신 수천의 동역자들을 보며 희망을 갖게 됐다”고 역설했다. 조 목사는 “이탈자들의 여러 가지 위험과 협박을 당하면서도 흔들리지 않고 함께 해준 분들이 바로 우리의 희망”이라고 말한 뒤 힘을 모아 비전을 이루어 갈 것을 당부했다. 이어 증경총회장 박영찬 목사 축도로 마쳤다. 이날 기하성은 임시총회에 앞서 교단발전을 위해 장로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자문위원장 이종은 장로를 비롯 조양연, 이성교, 이성실 장로 등 8명의 장로에게 자문의원 임명장

을 수여했다. 임시총회에서 의장 조용목 목사는 헌법개정안을 상정, 회원들의 의견을 경청한 뒤 “지방총회는 특수지방회에 해당되는 교회로서(본 교회와 지성전) 교역자 200명 이상, 교인이 10만 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또 “지역총회는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청, 호남, 경상지역으로 정하고, 500교회 이상, 교인 10만 명 이상 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헌법위원들이 준비한 안에 대하여는 지방회별 의견수렴을 거쳐 수정 보완해서 통과시켰다. 또 위 조건이 구비된 지방총회 및 지역총회가 청원이 있을 시 총회 임원회가 심의한 후 실행위원회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승인하며 지방 및 지역총회는 교단 헌법에 규정된 상회비의 50퍼센트를 운영비로 활용 수 있고, 나머지 50퍼센트를 교단 총회본부에 납부케 했다. 또 지방 및 지역총회의 총회장은 교단 실행위원으로 규정하고, 총회 산하에 있음을 명시했다. 이어 ‘교단대표 권리자 확인 건’을 현재 계류 중인 상표권 및 재산권 관련은 재판부에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

소강석 목사 출판기념사인회 가져



“편발의 소명자”로 잘 알려진 새예레교회 당회장 소강석 목사는 지난 4월 11일 오후 2시 영풍문고 종로점 광교출입구에서 출판기념사인회를 가졌다. 소강석 목사는 3M(멘탈, 맨몸, 펜션)을 시작으로 2만 5천 명의 성도에 이르는 신도시 대형 교회를 일구어내어 한국교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소목사는 주 5일 근무시대를 대비한 21세기 도시 목회의 새로운 모델인 1만여 평의 프라미스 콤플렉스 성전을 경기도 용인시 죽전동 1312번지 소재에 완공하여 다시 한번 한국교회와 전 세계 교회를 향한 비전의 노래를 펼치고 있다. 황송원의 「소나기」에 나올 법한

전형적인 시골 출신 소년이지만 가정에서 예수를 영접하여 쫓겨난 후 고향으로 신학을 공부하고 교회를 개척하여 대형교회의 담임목사가 되기까지 파란만장한 그의 인생 스토리는, 한편의 순정 만화처럼 흥미롭고 감동적이다. 그래서 소 목사의 설교와 저서들은 콘크리트 도시 속에 갇혀 사는 현대인의 가슴에 들끓듯한 향기를 전해준다. 소 목사는 교회비전과 사역에 있어서 “우리는 철저한 영성훈련을 통해 헌신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약속된 무한한 축복을 누리며 세상을 섬기며 역사와 사회에 빛을 발함으로써 교회의 참된 모습을 부여 주는 교회중의 교회를 꿈꾼다.” “우리의 사명은 프라미스 콤플렉스에 약속의 성전을 세우고 자손대대 이르기까지 축복의 가운을 이루어 복음으로 가정과 민족을 치유하

고 하나님나라를 회복하며 그 인재를 양성해 내는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기에 통일 한국 시대 민족의 지도자를 양성하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그의 목회를 한국교회는 주목하고 있다고 소 목사는 말한다. 그의 저서로는 2006년 한국기독교출판문화상 최우수상 수상작인 「신경주의 교회를 회복하라」를 비롯하여 「행복과 부흥」, 「잠든 영성을 깨우라」, 「믿음을 자손 대대로 전수하라」, 등 다수의 저서가 있고, 4권의 시집을 출간한 바 있다. 한일 간의 역사적 갈등과 이해결 과제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풀어 가기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되어 ‘마틴루터 킹 페어이드 집행위원회’(총재 래리 그랜트)가 수여하는 국제평화상을 수상했다. 이날 각계 인사들과 성도들의 축하를 받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으로 그를 찾는 하객들에게 늦은 시간까지 사인회를 가졌다. **편집부 성순회기자**

축 부 활

“2009년 부활을 축하합니다.”

기독교한국성서하나님의교회



총회장 이철재 감독(Bishop)와 임원일동

143-915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131-3
Tel.02)465-4090 FAX.464-8512
이메일 : scogop@empal.com
홈페이지 : cgp.acroplus.com

한국오순절교회협의회



대표회장 이철재 감독(Bishop)와 임원일동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127-3호
TEL. 02)465-4090
FAX. 02)464-8512

축 부 활

2009년 4, 5월 피종진 목사 국내·외 성회 일정



피 종 진 목사

4월 집회	
1(수)-2(목)	대만(Taiwan)나동지역 연합성회
3(금)-3(토)	대만(Taiwan)화련지역 연합성회
6(월) 오후	서울 미아교회(정태현 목사)총회신학교 ☎02)980-4728
6(월)-9(목)	서울 강남생수기도원(원장 윤순덕 목사) ☎02)683-4202
9(목)-11(토)	서울 수정영성기도원(김기성 목사) ☎01)270-7105
10(금) 오후	한영신학대학교 목회연구원 ☎02)2067-4511
10(금) 오후	한국부흥사협의회 (대표회장 정민철 목사) ☎010)3224-2345
12(주) 오후	상주시 기독교 부활절연합예배(대회장 강명원 목사) 상주 삼내체육관
13(월)-15(수)	시흥 소망교회(이정현 목사) ☎031)431-4817
16(목) 오후	서울 소망기도원(원장 연인애 목사) ☎02)3663-7777
16(목)-17(금)	창원 아세아연합신학대학대학원(총장 고세진 박사) CRC 강의
23(목)-25(토)	부산 JUST 리버비빌센터 (이사장 피종진 목사, 사장 이종문 목사) ☎010)9269-7700
27(월) 오후	전주 감림수양관(원장 김옥자 목사) ☎063)221-6792
28(화) 오후	예장(합동) 전국 목회자 세미나
	장소: 평화의동산원장 피종진 목사 ☎041)852-2211
28(화) 저녁	속초 시민교회(문종복 목사) ☎052)270-1004
	주최: 한국 동농선교회 전국 EXPO대회 (대표회장 문종복 목사, 본부장 최완수 장로)
29(수)-5.1(금)	일본(JAPAN) 교토성복교회(유봉호 목사) ☎0907)105-9000

5월 집회	
4(월) 오후	서울미아교회(정태현 목사)총회신학교 02)980-4718
4(월)-7(목)	서울강남생수기도원(원장 윤순덕 목사) 02)683-4202
7(목) 철야	평화의동산원장 피종진 목사) 041)852-2211
	제152차 해외성회(Ind Overseas Assembly)
8(금)-10(주)	미국(U.S.A)알산시(제자교회)(전남수 목사) 501)920-9049
11(월)-13(수)	미국(U.S.A)유대인석장로교회(이교성 목사) 801)565-7143
14(목)-17(주)	미국(U.S.A)오마하순복음교회(김수익 목사) 402)733-0598
18(월)-20(수)	한국복음화운동본부 여교역자성회(대표회장 이재희 목사) 잠실체육관
20(수) 오후	춘천예수전국교회(김기성 목사) 010)8302-4272
21(목) 오후	서울 소망교회(연인애 목사) 02)3663-7777
21(목)-23(토)	안양 생수교회(박정희 목사) 010)9905-3276
22(금) 오후	세계성령회부흥사연수원(원장 손학봉 목사) 02)471-7801
24(주)-27(수)	춘천시기독교연합회 주최 성서화신교대성회 (대표회장 정호근 목사)
	장소: 춘천 호반체육관 011)369-1467
28(목) 오후	오산리최자실기념금식기도원(원장 김태복 목사) 031)947-0091
	주최: 조국평화통일협의회 (대표총재 피종진 목사, 대표회장 진요한 목사)
28(목)-29(금)	춘천 새희망교회(하진홍 목사) 033)261-9179
31(주일)	원주 큰사랑교회(권병오 목사) 033)731-6004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86번지 E-mail:holyspirit7777@gmail.com
교 회 : (02)3411-9191, FAX : (02)3411-9111
목사관 : 010-5255-7777, FAX : (02)401-7770

대한예수교장로회 남서울중앙교회

한기총 237개 지역연합회와 영적대각성운동



▲전국 각 지역 기독교 연합회 임원 500여 명이 모여 구국기도회와 영적대각성운동 발대식을 갖고 어려움에 처한 대한민국과 국민들의 희망이 될 것을 다짐하는 장이 되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20주년 기념사업으로 진행되는 영적대각성 운동에 지역기독교연합회가 동참했다. 한기총 영적대각성운동본부는 27일 오후 1시 대전유성호텔에서 전국 237개 지역기독교연합회 회장단 초청 구국기도회 및 발대식을 가졌다.

237개 지역 기독교연합회, 영적운동에 동참

창립 20주년을 맞은 한기총은 이 운동이 전국교회로 퍼질 수 있도록 각 지역 기독교연합회 회장단과 함께 이번

달부터 12월까지 영적대각성운동을 펼쳐나가기로 다짐했다.

한기총 대표회장 엄선형 목사는 “이 때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이 시대에 한국교회가 영적회복에 나서야 함을 강조했다.

엄 목사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영적인 위기에 처해있다”며 “음란과 거짓 이단 세력이 우리의 영혼을 삼키려고 도전하는 이 때에 우리가 나서서 깨끗하게 할 때”라고 영적대각성운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발대식에서 20주년 영적대각성운동본부 상임본부장 김영태 목사 역시 “지역 곳곳에서 부흥의 불길, 이 일어나면 한국교회 전체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며 “이번 한해 전국적으로 기도해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계기를 만들자”고 인사했다.



▲전국에서 참석한 각 지역연합회 임원들은 영적대각성운동을 위해 뜨겁게 기도했다.

도덕적 회복과 이웃성김 다짐

이날 참가한 전국교회 목회자 400여 명은 철저한 회개와 영적 각성운동으로 지역 변화와 한국교회 변화의 중심에 설 것을 선언하는 선서문을 발표했다.

다.

선서문을 통해 이들은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을 섬기도록 일꾼으로 부름 받은 우리는 한국교회 공동체성 회복, 한국교회의 미래를 조망하는 청사진을 도출이 되기를 소망한다”며 △영적 각성운동에 헌신 △교회연합과 일치 △창조질서 보존 △이웃성김을 선언했다.

한기총은 이날 전국 각 지역에서 이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참석한 지역기독교연합회장단에 위촉식을 수여하며 이 일에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

이날 발대식을 시작한 영적대각성운동본부는 오는 5월 30일 성령강림 금식기도회, 6월 25일 전국십자가대행진, 8·15금식기도회, 10월 30일 종교개혁 말씀사경회 등의 일정을 통해 운동을 펼쳐갈 계획이다.

3개 총회 예정합동보수가 다시 손잡다

분열과 갈등을 넘어 ‘복귀’ 합동 결정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보수 측(총회장 이문복 목사)과 합동보수 A측(총회장 정진성 목사), 유석철 총회장 등 3개 교단이 다시 손을 굳게 잡아 복귀총회를 4월 2일 오전 11시30분에 서울 종로 신문로에 위치한 살롬교회(정진성 목사)에서 가져 교단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3개 교단이 복귀총회로 회집된 합동보수총회는 지난 3월 19일 롯데호텔 뷔페에서 모임을 갖고, 하나의 합동보수교단을 선언하고, 양 교단의 합동은 분열과 갈등으로 얼룩진 합동 비주류 측 계열 합동의 첫 신호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양 교단의 합동이 빠르게 진행된 것은 지난 9월 총회에서 합동을 위해 폐회를 선언하지 않고, 합동보수 A측이 교단의 이름을 국제 측에서 합동보수로 바꾼 후 합동에 대한 의지가 강하게 작용되어 양 교단의 합동위원들이 합의 5개항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합의문에 서명하여 합동이 성사되었다.

양 교단은 목회자들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고 존중하며, 구체적인 분위기에서 합동총회를 개최하기 위해 합동보수총회로의 복귀총회로 명명했다. 또한 ‘대한의 총회’라고 이름을 붙였다. 따라서 양 교단의 복귀총회는 무리 없이 진행된 가운데, 양 교단 합동위원들의 서경도 구체적인 분위기에서 진행 되고, 양 교단이 합동보수총회로의 복귀를 위해서 한 발자 물러나는 합의를 도출했으며, 합동보수 A측 총회장 정진성 목사는 “분열과 갈등으로 얼룩진 한국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강조, 이날 양 교단의 합동은 합동보수 측의 복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게다가 양 교단의 공통점은 합동과 분열의 경험을 여러 차례 겪은 상황에서 큰 성과를 이끌어 냈다. 총 회원 모두가 다시는 분열로 인한 아픔을 겪는 일이 없기를 공감한다”양 교단의 합동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진행되었다며, 감사했다. 하나의 합동보수교단을 위해 모든 힘을 쏟겠다는 다짐과 함께 합동은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하고, 이

번 합동총회도 구체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된 것이었다. “강조했다.

화기에애한 분위기에서 신학교와 총회사무실은 마포구 토정동에 들 것을 합의하고, 총회신학교는 합동보수 A측을 사용하며, 노회에서 이사를 파송하며, 개신대학원대학교를 교단인준신학교 합의했다.

이문복 총회장은 “양 교단의 합동위원 모두가 분열과 갈등의 시대를 종식하고, 하나의 교단을 이룬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것은 합동측 분열당시 비주류 합동의 첫 시발이었는데 그의 미가 크다”앞으로 비주류 측 교단의 합동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3개 교단 복귀총회는 부총회장 조규일 목사의 사회로 김영호 목사(증경총회장)가 기도, 이규필 목사(부총회장)가 성경봉독, 이기형 목사(증경총



회장이 “가장 의의와 결과”란 주제로 말씀을 전 한 후 임원, 증경총회장, 총회원 성경봉독을 갖었으며, 이재호 집사(제일장로교회)가 축하송을 하고, 안호상 목사(증경총회장)가 축도를 했다.

이어 살롬교회에서 오후 2시 30분 안길선 목사(증경총회장의 사회로 김명환 목사(증경총회장)가기도로 회무처리에 들어가 회원 호령, 개회선언, 질자보고에 이어 양측 증경총회장 4인이 전형위원(합의문)을 선포 발표하고, 정진성 목사(살롬교회)를 총회장으로 추대하는 등 임원인사를 결정하고, 송병설 목사(증경총회장)폐회기도로 마쳤다.

감리교 심상창은 기류 결국 돌로?

김국도 목사 측의 일방적인 행보에 관심 쏠려

감리교가 슬슬 분열로 가는 것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소위 김국도 목사측과 고수철 목사측이 경쟁을 벌여선 대립의 현상으로 가고 있다. 감리교 사대는 감독교회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비롯 됐다. 지지세가 당선을 예상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 김국도 목사가 출마를 했다. 그러나 고수철 목사 측에서 자격문제를 법원에 물었고 법원은 김국도 목사는 자격이 없다고 회신했다.

하지만 절대 다수의 찬성으로 김국도 목사의 당선으로 이미 선거가 끝났지만, 무자각으로 실력처리하고 차점자인 고수철 목사의 당선을 선포했다. 이때부터 실질적인 감독교회는 나라고 서로 주장했고, 법적으로 정당한 자격을 가진 감독교회장이라고 주장하는 고수철 목사 측과 선거에서 압도적인 표로 당선된 감독교회장은 김국도 목사라고 하는 주장이 갈수록 격화되고 폭력까지 일어났다.

결국 이들은 감리교 본부를 접수하는 일로부터 거의 전쟁이 가까운 정찰전을 벌였고 급기야 고수철 목사측이 동부지방법원 기처분에 대한 즉시항고를 취한 것과 관련해 “불리한 판결을 예상하고 소송을 취한 것”이라며 “그들은 이미 텅 위에 올라와 흰 수건을 던졌다.”고 주장하면서 감독교회장 선거(2008년 9월 25일) 이후 전인 2008년 9월 23일 내려진 김국도 목사 후보 자격을 정지 가져본 결정의 판결문 송달 시점도 문제 삼았다.

이들은 “당시 후보였던 고수철, 강홍복, 양총재가 제기했던 후보자등록호령정지처분 결정이 내려진 것은 23일이다. 그러나 송달된 시점은 선거가 이미 진행 중이던 25일이었었다.”고 밝혔다. 김 목사측은 “이 결정의 법적 효력은 이 결정문을 피신청인 신명하 감독 혹은 대리인 변호사가 송장을 받는 순간부터 발효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판결문이 당일 선거 시작 시간인 10시를 넘거나 10시에 임박해서 송달됐기 때문에 선거결과의 효력은 유효



▲김국도 목사측 초법적 특별총회 강행. 절반 이상 참석한 듯, 뉴스파워 최정민

하다는 것. 이에 “선거가 유효하기 때문에 김국도 감독교회장 당선도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뉴스파워 기사에 의하면 김 목사 측은 이어서 9일 오전 임마누엘 교회에서 초법적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제28차 특별총회를 개최했다.

교단법에 따르면 적법한 회의의 경우 전체 총회대표 149명 중 과반인 74명 이상이 참석해야 회의가 성사된다. 김국도 목사는 총회 전 예배 후 광고에서 “현재 812명이 등록했다. 정족수는 749명이다. 한 줄에 23명씩 앉는다. 4줄이 거의 찼다. 이 통계는 정확하다.”고 말했다.

이어 “감독님들은 왜 등록 안하셨나. 이 숫자는 대충 계산하신 안 된다. 어쨌든 숫자를 기재해서도 안 된다. 남의 이름을 도용해서도 안 된다. 진실 그 자체여야 한다.”며 “필요하면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감독 중에는 정황희 감독이 참석해 축도를 맡았다.

임마누엘 교회 정문에는 예정합동최정민 목사와 군선교연합회 회장 곽선희 목사가 보내온 화환이 전시됐다. 예정합동 공보실 관계자는 “보통 화환은 총회 사무국을 통해서 보낸다. 확인 결과 총회에서 공식적으로 보낸 것은 아니고 교회에서 보내진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 회의에서 김 목사 측은 한결을 더 나아가 한기총 가입을 결의하였고 한기총 대표회장을 방문하여 뜻을 전달하는 자리에서 엄선형 대표회장은 가입결의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총대들은 △사무국 김영동 총무 해임 결의 △기독교다임즈 박영현 국장 행정실장 임명 △감독교회장 직무능력 협조위원을 각연회별 5명씩 임명 △유지재단, 복지재단 등 5개 재단 이사장을 김국도 목사도 등재 등을 결의했다.

김국도 목사측의 이러한 행보는 고수철 목사측을 자극했다. 극도로 흥분한 모습을 보이며 “아예 잘린 것이 아니냐 갈라서자”는 말이 돌리고 있다는 것이다.

뉴스미션이 전하는 기사를 보면 ‘임마누엘측 총회 또는 KD측 총회 만들

이 나가라’ 하지만 다른 일각에서는 기왕 그렇게 될 거라면 애써 말리지 말고 그렇게 되게 함으로써 갈라서자는 목소리가 하나 몰나오고 있다. 이필환 목사는 담담뉴스에 올린 글에서 “어떤

상황이나 법적 판결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감독교회를 하겠다는 데에야 누가 저를 말릴 수 있겠느냐”며 “(김국도 목사)가 기어이 감독교회장 행세를 하겠다면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자”고 말했다.

남재영 목사는 감리교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돈 들어, 온갖 수모를 겪으면서 예까지 온 거 감독교회장 행세는 품나게 하셔야 하지 않겠느냐”며 “대한예수교감리회”로만 실패 처리시키고 본부에서는 명예롭게 철수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만경 목사도 “정말로 김국도 목사가 감독교회장이라고 믿고 우기는 분(구적)과 악독을 초월한 분들은, 그분을 모시고 그대들이 원하는 것을 하시오”라고 밝혔다.

뉴스앤조이가 전하는 기사에는 고수철 목사의 인터뷰가 실렸는데



▲김국도 목사가 소집한 특별총회 참석자들이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엄선형목사)가입을 결의했다. 이 자리에 엄선형 대표회장이 방문했다.

고수철 감독교회장은 <뉴스앤조이>와 통화에서 “총대 843명이 참석했다는 것은 거짓일 가능성이 크다. 자체 조사를 벌일 것이다. 법 절차를 무시한 한기총 가입 결의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거론하는 ‘교단분리’에 대해서는 “법적인 분쟁을 겪겠지만 차라리 김국도 목사가 교단을 하나 차려서 나가는 게 감리교가 견고히 서는 데 좋을 것 같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감독교회를 하기 위해 사소한 일을 들고 법원에 까지 달리는 모습, 그리고 법원의 판단을 가지고 교회가 절대다수로 결정한 일을 뒤엎고는 내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모습도 불행 사납고 교회가 결정한 일을 세상이 바꿀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파국으로 몰고가는 모습도 참으로 딱이 되지 못한다.

한국교회가 세상으로 부터 외면 당하는 이유를 다른 곳에서 찾을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축 부활 - 2009년 부활절 예수 다시 사셨네!

열두광주리기도원

찬양+말씀+기도
응답+치유+회복

정기성회

매일 오후 8시 동해의기적성회

주제: **곳간 채우라** 강사: 김평호 목사

김평호 목사 프로필

선한목자 부흥사의 대표회장
열두광주리수양관 원장
H.P.010-8411-0191 031-535-6975
(부흥사 외원 기립환경, 자비행부흥성회인도)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하성북리 350번지
010-8411-0191, 031-535-6975
선한목자부흥사회 대표회장: 김평호 목사(열두광주리 기도원 원장)

건·강·한·교·회

한국기독교장로회

홍성제일교회

강 모이고
강 배우고
강 전하자!

담임 오종설 목사

041)634-0441(사무실)
041)633-9146(목양실)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옥암리 9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소망교회

담임 김동락 목사와 교우 일동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성함) 총무,
본지 상임이사)

문의: 031) 968-0199
교회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719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동심장로교회

주일에배안내

금년표어: 말씀, 기도,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전진하는 교회

주 일 낮	: 오전 11시
주 일 오후	: 오후 2시
수 요 기 도	: 오후 7시 30분
새 벽 기 도	: 새벽 5시 30분
목 요 찬 양	: 오후 8시 30분
유 · 초 등 부	: (토)오후 4시 30분
대학 · 청년부	: (토)오후 6시

원로목사: 전영춘
담임목사: 전봉화
반 주: 김민정

1. 교 회 부 흥
2. 성 령 충 만
3. 말 씀 충 만
4. 사 랑 충 만
5. 순 복 충 만

143-150 서울시 광진구 군자동 96번지
☎.02)463-0288

예장(합정) ‘전국 목회자대회’



▲장원기목사(오른쪽)김삼환목사(왼쪽)



2천 5백명 참석 교단발전에 큰 틀 마련 일반 목회자·사모 위로와 도전의 자리 통합측 김삼환총회장 개회설교

는 일이 하나같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믿는다고 말해 박수를 받았다.

또한 한기총 임선형 대표회장은 축사에서 “전국목회자대회가 교회와 교단기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한국교회의 사회적 영향력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기록제의 장이 되길 바란다”면서 “이번 대회를 통해 성령충만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영성회복에 앞장 설며 화합과 일치운동에 앞장서는 총회가 될 것”을 당부했다.

증경총회장 최낙중 목사는 격려사를 통해 “가장 적절한 시기에 가장 필요한 일을 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기회에 그동안 잃었던 영력과 정신력과 체력을 회복함으로써 개교교회들이 건강하게 부흥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병회 목사로 축사를 통해 “우리는 총회와 학교, 3원교회가 삼위일체임으로 기억하면서 한 생명공동체로서 우리는 서로 기도하며 힘을 합쳐 나아가는 한국교회에 ‘희망’을 전하고 한국교회를 진동시킬 모범교단이 되리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노회별로 고른 참석을 보인 가운데 교단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 이번 전국목회자대회는 서기 이영주 목사를 총운영위원장으로 임원들이 전

제적인 진행을 맡았으며, 모든 순서에 노회장들이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교육국 실명위원들이 진행을 도와 순조롭게 대회를 마쳤다. 대회를 마친 후 경품권 추첨에서 최신행 스타렉스 1대와 최신행 노트북 30대, 크리스탈 성구사가 제공한 최신행 크리스탈 강대상, 영광기업의 최신행 복시기 등이 각각 전달됐다. 스타렉스는 경기노회 주님의교회 서상연 목사 사모가 행운을 안았다.

장원기 총회장은 교단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갖고 “통합총회와의 교류는 형제교단으로의 연합과 협력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교단함동으로의 확대 해석은 하지 말아줄 것”을 강조하면서 “대회가 마치고 나면 우리학교 출신으로 다 교단에서 목회하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영입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여 일정 교육을 거쳐 한 가족으로 만드는 일에 주력하겠다”고 밝혀 향후 그 움직임에 관심이 모아졌다.

한편 총회 임원들은 대회 직후인 13일 총회본부에서 전국목회자대회 평가회를 겸한 임원회를 갖고 이번 대회의 종합적인 진행을 평가하고 결산을 통해 2천4백만 원의 예산을 총회에 일금하기로 결의했다.

지저스타임즈

www.JTNTV.kr 인터넷방송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서울다-07837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이사 및 본지위원장: 박영수 목사(예장신교회 부총회장)

상임고문: 최종진 목사(남서울중앙교회)

이 사 장: 전영준 목사(동신교회 원로목사)

사 장: 소진우 목사(예복교회)

부 사 장: 원병우 목사(임마누엘성교회)

본사편집부장: 김규리(나래이미지 대표)

전국지사 대변인 이사장: 박영수 목사(대전청철정 경목위원회 상임총무)

대전 총총지사장: 라영수 목사(지시교) 전철철 사모(부 장)

전남 목포지사 지사장: 조광표 목사(목포만민교회, 목포신학교 학장)

경북 대구지사 지사장: 이상락 목사

전북 전주지사 지사장: 박주성 목사(선일장로교회)

해외지사 미국 지사장: 김기일 선교사

미국 워싱턴 지사장: 정영선 목사

태국 치앙마이 지사장: 전승주 선교사

본부 업무부 부장: 정태동 목사

본사 이사회 사무국: 전철철 부장

서울시 종로구 인의동 48-26 (영광공제회) 12층

본지 인터넷신문방송 www.JTNTV.kr (E-mail: webmaster@JTNTV.kr)

전화: 070-8230-0032, 02-034-02741-0031, 02-407-6574, 팩스: 02-763-0221

대표: 011) 468-6574

지난 3월 9일부터 11일까지 강원도 홍천 대명비발리콘도에서 예장합동 정통총회 주최로 ‘전국 목회자대회’가 열려 교단발전에 큰 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당초 예상인원 2천여 명에서 2천5백여 명이 참석하는 계기를 이루었다.

총회장 장원기 목사는 첫날 개회사를, 마지막 날은 폐회예배 설교를 맡았다. 그는 이번 대회의 의미와 개회배경을 설명 “일선 목회현장에서 수고하는 목회자들은 총회에 참석하는 총대들과는 달리 전체가 보이는 자리가 없어 아쉬웠다”며 “각정도 많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노회와 교회, 백성대교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성공적으로 치루게 되었다”며 감사를 전했다.

또한 금번대회에 “목회자들은 물론 사모들이 동반참석을 해 마음껏 기도하고 쉬면서 즐거운 영적체험의 시간을 갖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영적으로 지치고 매마른 일선 목

회자와 사모들을 위로했다. 또 한국의 대표적인 부흥사인 윤석진 목사와 윤호균 목사가 인도한 저녁집회와 새벽집회는 금번 목회자대회의 하이라이트가 되었다.

윤석진 목사는 동문임을 강조하면서 “함께 공부하고 기도한 동역자 여러분을 보니 고향에 온 기분으로 기쁨의 감사가 넘친다”며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고 목회한다며 그 어떤 고난과 역경도 이기며 반드시 목회에 성공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목사는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이번 대회를 계기로 1만 명에서 10만 명이 보이는 교회가 반드시 나타날 것이라고 축복하고 참석자들은 아멘으로 화답했다.

첫날 준비위원장 부총회장 유관석 목사 사회로 진행된 개회예배에 통합총회장 김삼환 목사가 설교에 나서자 많은 관심을 보였다. 김 총회장 역시 평소 교류를 가져온 목사들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일찍부터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던 만큼 장기적으로는 하나 되

기성 이문동교회 김용주 목사 취임감사에배

기독교대한성결교회(이하-기성)이문동교회는 담임 김용주 목사를 청빙하고 취임감사에배를 드렸다.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1동 소재 이문동교회는 지난 4.12일(부활주일) (지리목사) 윤의광 목사 집례로 진행된 예배에 (서울중앙지방 부회장, 명광교회) 강홍일 장로가 기도, 창성교회 김곤 목사가 성경봉독을, 이문동교회 성가대의 찬양에 이어 (서울중앙지방 회장, 장지교회)김성찬 목사가 “한 목



자 한 우리 양떼”라는 제하의 말씀을 전했다.

2부 담임 김용주 목사 취임식이 순서에 의해 진행되고 본 교회 원로 정성구 목사 축도로 마쳤다.

칼럼

어른들을 존경하는 사회



본지논설위원 최창희목사

전 문화부 장관인 이어령 박사는 어느 강연회에서 이런 말을 했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어른들이 없다. 지식인도 있고, 과학자도 있고, 정치가도 있지만, 어른은 사라진 지 오래다. 그 이유는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큰 갭을 메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늘 보고 듣는 것들이 디지털로 대체되고 있다. 산과 바다, 우리가 살고 있는 주택, 그리고 우리 육체까지도 전부 다 아날로그다. 다시 말해서 자연계와 물질계는 영원히 아날로그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문을 나서면 모든 것이 디지털을 추구하고 익숙해져 있고, 편안한 것은 사실이다. 점점 진화된 디지털이 대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아날로그세대가 디지털세대를 가르치면 디지털세대는 못 배운다. 우리 사회에는 많은 공공의 장소가 많다. 공공의 장소엔 작은 규칙이 있다.그중에 하나가 남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된다. 만약에 그런 규칙이 무너지면 공공의 장소는 엉망진창이 되고 힘있는 자만의 공간이 될 것이다.그러나 우리는 배트맨 같은 정의의 사자가 있어주길 갈망한다. 영화같은 이야기지만도 기실 요즘 공공의 장소에 가보면 버릇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가끔 혐기성 좋은 말을 하면 나쁜인상으로 돌아온다. 왜 그렇게 디지털세대는 질 낮은 인격으로 되어졌을까. 좋은 조건을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수긍하는 자세를 잃어버렸

을까. 참으로 안타까운 시대를 살고 있다. 이사회에는 어른들이 필요하다. 어른이 있어야만이 사회질서가 조화를 이룰 수 있다. 어른들을 공경해야 한다. 이사회 어른들은 만인생의 경험을 축적한 지식과 지혜다. 젊은 디지털세대가 넘보지 못하는 노후이다. 더불어 이사회 어른들의 큰대산이기도 하다. 디지털이 아무리 과학적이고 생활을 편리하게 한다고 해도 기본인격을 형성하지 못한다.도덕과 윤리는 이념의 세계이기 때문이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어른들을 아날로그 세대라고 한다. 그것은 자신들이 디지털 세대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럼 디지털과 아날로그는 무엇인가. 간단하게 말해서 아날로그는 있는 그대로를 기록하는 것이고, 디지털은

보다는 자율[自律]을 지향한다. 법을 어기면 벌을 받는다. 그래서 법을 따를가능이라고 한다. 누구나 따를[他律]에 지배를 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그런데도 현실은 자율하지 못하고 따를에 받고 있다.왜냐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기본이 안되었다는 것이다. 사람은 더불어 살아야 한다. 기본교육은 자기관리와 사회인으로서의 대인관계를 돈독하게 한다. 기본교육은 약속해 놓은 말과 약속을 이행해야 하는 행동의 격식과도 같다.

아름다운 어른들은 많은 경험을 지니고 있다. 하나의 일이 어떤 패턴을 가지는지, 행동에 따라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몸소 체험한 분들이다. 그래서 존경해야 한다. 언젠가는 디지털도 아날로그에 이르게 된다. 또한 어른들도 어른다워야 한다. 더러는 젊은 세대들에게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 나이에 오는 포기는 전체적으로 힘이 사라진다. 그러기에 혼을 내고 경험담으로 어른만큼 쥐어 준다.

어른을 존경하는 사회, 그 사회가 면할 날 사회의 주춧돌이 되고 현실에서의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든든한 힘이 될 것이다.

논설위원 최창희 목사 cjanghee@kbs.co.kr

"희색리본 달고, 콘서트 구경 가요"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이사장 홍정길(은 장애인)의 날(인)을 맞아 16일 서울 강남구 일원동 밀알교회 내 세라믹팔레스홀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이 소리로 통합하는 밀알콘서트'를 개최했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한 이날 행사는 세계적인 장애인 성악가 테너 최승원과 안문을 통해 이미 유명해진 천재 피아니스트 소녀 유예은(시각장애, 7세)이 출연했으며, 그 밖에 바이올리니스트 백주영, 비리온 김경호, 첼리스트 김효정 등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진 음악가들이 대거 출연하여 장애인의 날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져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다.

장애인을 비롯한 소외된 이웃들의 사회통합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콘서트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바로잡고, 장애인의 사회통합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산을 목표로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공감하며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레퍼토리로 큰 성과를 거뒀다.

특히 시각장애 피아니스트 유예은의 연주와 함께 기획되어진 짝꿍 장애 체험 이벤트에서는 콘서트의 하이라이트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장벽을 허물고 음악소리로 소통하는 소중한 경험과 함께 진정한 감동을 선사해 화가애한 장이 되었다.

이날 밀알콘서트에서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실천하자"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기에 화색리본달기 캠페인이 함께 실시되었고, 콘서트 참석자 전원에게 화색리본 뱃지를 증정했다. 또한 장애인식개선 공모전 수상 작품 전시회도 함께 진행되어 콘서트에 참



여하는 관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해 아쉬움을 남겼다.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은 장애인 복지를 위해 지난 1993년 설립되었으며, 장애인 전문특수학교인 밀알학교, 장애인 그룹홈, 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사업장을 비롯한 20여개의 복지시설에서 300여명의 임직원들이 장애인을 비롯한 결식아동, 독거노인 등 우리사회의 소외된 이웃에 대한 지원 사업을 펼쳐왔다.

사단법인 총회신학 신·편입생 모집
(남·여) 목사안수, 교단가입

총 장	대학원장	이 사 장	학 장
차경태 목사 전,총신대 총장	최종진 목사 남서울중앙교회	최영준 목사 교육일보 사장	정민철 목사 총회신학연구원

학 장 및 교수진

차경태 교수	최종진 교수	최영준 교수	최아미 교수	최가람 교수	최영준 교수	정민철 교수
--------	--------	--------	--------	--------	--------	--------

■본 교단은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신학)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에 가입한 교단입니다.
■본 사단법인 총회신학연구원은 국내 유일의 성서학부 학과를 운영 중인 교육기관으로 총회신학연구원 무인기 신학교를 본 사단법인 총회신학연구원내에 통합하여 개설하여 편입생 모집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 경제적으로 활동여력은 사명자를 위해 전전 장학제도로 공부 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위해 시간적 방해를 최소한 줄이기 위해 인터넷 통신으로 공부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미국 주 정부로부터 학과방은 신학대학과 차별적인 석·박사·영재학사 학위를 취득 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총회신학, 신·편입생 수시모집

- 전도사 사역 감도사 연회 목사안수, 학 신학교 졸업자 성당 후 목사안수
- 초교과 신·편입생, 수시입학, 전전 장학제도(학기당 10만원)
- 인터넷 통신으로 수업가능성, 1년 4학기 방학없이 조기졸업
- 장로 및 사모들은 3학년으로 편입생, 일반대학 졸업자는 4학년으로 편입생
- 수업일: 매주(월,목) 오후 1시 ~ 5시까지 / 지역캠퍼스: 서울, 부산, 대전, 전주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5가 39-6 (3층) / 지하실 5호선 3번출구 앞
■전화: 010-3224-2345 / FAX 02-2069-0105

사단법인 총회신학연구원 www.7777.or.kr E-mail: jmc9090@yahoo.co.kr

성령치유 능력의 종 정민철 목사 초청
전주지역 성령치유 축복성회

교 문	총 제	대표회장
조용기 목사 예외도순복음교회	최종진 목사 남서울중앙교회	정민철 목사 남서울중앙교회

와보라!! 여기에 기적이 있다!

장 사

정민철 목사

- 남서울중앙교회 담임
- 전주·성령치유센터 부장
-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질/의/목/경

- 1) 강력한 성령의 기쁨부름 치유역사
- 2) 강력한 축사, 예언, 입신, 방언, 신유
- 3) 디스크, 심장병, 당뇨, 위장병, 각종 암치유
- 4) 우울증, 불면증, 정신병, 파킨슨, 치매
- 5) 잃어버린 신앙회복, 영적문제 해결
- 6) 바울의 순수한 사역을 통하여 불복종을 받게 된다

일시: 1차: 2009년 4월 13일(월) 저녁 ~ 17일(목) 새벽 2시, 4차 8시 / 1월 2차: 2009년 4월 20일(월) 저녁 ~ 24일(목) 새벽 2시, 4차 8시 / 1월 2차: 2009년 4월 27일(월) 저녁 ~ 1월 31일(목) 새벽 2시, 4차 8시 / 1월 2차

장소: 전주·성령치유센터 (합정: 정민철 목사) 전주시 한호동 1가 783-3

주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www.9191.net)

문의: 010-3224-2345 / 063-244-9101

참고하시라: 길: 전주 한호동 한강 사거리 천복은행 맞은편 3층 건물

3월 4월 김천호립산기도원
매주연속축복대성회

주 제	주 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라(골3:3)	대표회장				
수석성도회장	김우종장	김우종장	김우종장	김우종장	김우종장	김우종장

강사 및 일정

강사	강사	강사	강사	강사	강사	강사
김천호 목사	김천호 목사	김천호 목사	김천호 목사	김천호 목사	김천호 목사	김천호 목사

날짜: 3.2(매주 월,목)-매오(수,목), 수(오,목)까지
시간: 오후 2시 / 저녁 7시 30분
장소: 김천호립산기도원 (원주·영호 예)
(정북 김천호 부장동 275번지)
주최: 경인부흥사업협의회 (총대:정북김천호, 영호:정북김천호)
문의: 051) 439-1830, 010-5511-2978

사선을 넘어서 북한 1호 공훈배우 주순영선교사

[9화] 택시기사 고발로 中 감옥에... 돈 숨기려 비닐에 싸서 삼켜



새벽에 내린 내용물의 열연(二連)은 또 다른 세상이었다. 곳곳의 잔상과 매서운 바람이 몰아치는 황량함이 중국 땅이요, 완전히 다른 땅이었다. 그 자체만으로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하기에 충분했다. 중국땅을 잘하는 예림이가 앞장서 여 근처 호텔 방을 찾아 들어가 잠깐 눈을 붙였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약속의 땅, 천국의 땅, 자유의 땅, 한국으로 향하는 길을 찾아나서야 했다. 우리는 우리의 길에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굳게 믿기로 했다. 솜옷과 모자, 양말, 장갑 등을 구입하곤 몽금포 관광을 온 조선족 중국인으로 행세하며 택시를 탔다. 돈을 좀 챙겨온 것이 그나마 위안이 됐다. 그런데 초반부터 일이 틀어지기를

작했다. 몽금포 가는 일일 여행권을 끊어주기로 했던 택시기사의 변심으로 중국 군인들에게 체포됐다.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만 생각하며 기도해야 한다고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다. 또다시 복송돼야 한다고 생각하니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심정으로 트럭에 실려 갔다. 눈을 감고 '하나님, 살 길을 열어주세요 요리며 기도하는 중에 내몽고 이런 간수소라고 쓴 간판이 보였다. 놀라란 담장 안의 조라한 건물로 끌려 들어갔다. 바로 몸과 집 수색을 당했다.

아니나 다를까, 동생들의 옷을 발가벗기자 몸에 감췄던 중국 돈이 와르르 쏟아졌다. 그들도 의아해했다. 부들부들 떨고 있는 가운데 내 차례가 왔다. 먼저 내 가방을 열어 물건들을 다 꺼낸 그들은 사진첩 속 김일성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고 놀라는 기색이었다. 그러자 예림이가 얼른 "이 언니는 북한의 유명한 배우예요"라고 말했다. 그러자 나에겐 옷을 벗기지 않고 손으로 더듬

기만 했다. 다행히 몸속 은밀한 곳에 숨긴 7000위안을 고스란히 지킬 수 있었다.

우리는 모두 같은 방에 수감됐다. '돈이 곧 생명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던 우리는 7000위안을 지킬 수 있게 해준 하나님께 감사하며 머리를 맞대고 돈을 보관할 방법을 궁리했다. 그런 중에 예림이가 볼록 "언니, 먹읍시다"라고 했다. 다른 동생들도 맞장구를 쳤다. 그게 가장 안전하다는 의견들이었다.

우리는 100위안짜리 2장씩을 접고 또 접어서 볼록 말아 비닐 봉지로 싸다. 손가락 두 마디보다 좀 작은 크기였다. 막상 돈 봉지를 삼켜야 할 것을 생각하니 끔찍했다. 우리는 간수에게 마시 물음 넣어달라고 부탁해 하나씩 목구멍으로 삼켰다. 하나씩 삼킬 때마다 짹짹거리면서 토하기도 하면서 그 아달로 밤새 고문을 치렀다. 얼마나 물을 마셔댔는지 큰 물통 3개를 비웠다.

역시 무리였다. 돈 봉지를 삼키고 난 뒤 두어 시간 후부터 위경련이 일어났다. 우리 모두 배를 끌어안고 눈물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도 탄로날까 봐 소

리를 내지 못하고 서로를 위로하면서 뜬눈으로 밤을 보냈다. 다음날부터 우리는 먹은 돈이 몸에서 나오지 않고, 배가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했다.

그러나 생리적인 현상을 어떻게 막으랴. 뱃속에서 신호가 왔다. 감방 안 변기통에 앉자마자 '부르릉' 팡팡하는 소리가 요란하게 나왔다. 난감했다. 한 사람이 변기통에 앉으면 옆에서 "하나님, 제발 소리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라며 기도했다.

그래도 몇 개씩의 동공지가 나왔다. 동생들은 겁에 몸을 따라 대충 씻어서 다시 입에 넣고 삼켰다. 억한 냄새와 삼킬 때의 고통, 정말 사람이 할 일이 아니었다. 나오면 다시 삼키고, 또 나오면 또 삼키고... 그러기를 수십번씩 하는 동안 일주일일이 넘었다.

우리만 있던 감옥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역시 북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모두 고생에 잔뜩 찌든 상태로 절망감을 한아름씩을 안고 있었다.



웨신總會復興師會 代表會長 張 昌 潤 牧師

◀復興師는 解決士이다.

1.復興會를 통하여 問題를 解決해야한다.

2.부흥사는 擔任牧師가 教會를 잘 하도록 도우는 役割을 해야 하며 또 教會와 聖徒들에게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해결사이다.

3.부흥사는 불을 끄는 消防手에 不過하지, 집을 지어주는 建築家나 집의 살림을 責任져야하는 집 主人 이 아니다.

1.부흥회와 教會를 區分하다.

◀教會는 敎人을 가르키는 것이다. 부흥회는 목회를 도우는 것이다. 부흥회는 목회的一部分에 屬한다.

ex) 목회 - 家庭 父母 부흥회 - 學校 病院 敎師 醫師

◀부흥사는 부흥회로 끝나야 한다.

復興師와 復興會

부흥사는 부흥회라는 짧은 期間 동안에 敎會者가 맡겨준 聖徒들을 잘 敎育시키고 목회자의 使役을 도울 수 있는 일꾼들이 되는 길을 案內하고 그 方法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바로 거기에서 부흥사의 任務는 끝나며 더 이상 關與해서는 안 된다. 더 이상을 관여하게 되면 그 교회 담임목사의 목회를 妨害하는 것이다.

2.復興會 說敎와 教會설교를 區分하다.

◀목회說敎는 長期的인 설교이다. 목회설교는 많은 歲月이 흐르면서 성도들을 만들어가는 설교이다

- 가장에서 부모가 자식을 키우듯이, 시간을 두고 천천히 세울을 두고 한다.

목회설교는 綜合病院의 治療方法과 같다(좋은 곳이 있어도 피 검사부터 하고 차후에 치료를 한다).

◀부흥설교는 短期的인 설교이다. 부흥설교는 짧은 時間에 성도들을 만드는 설교이다.

- 병원에서 患者를 治療하듯이, 학교에서 學生들을 가르치듯이, 즉

집게 과외를 하듯이.

부흥설교는 個人병원의 治療方法과 같다(좋은 곳이 있으면 곧 바로 찾아서 치료를 한다).

◀목회설교는 길어도 無妨하다. 목회설교는 長期戰이기에 當장 勝負를 보지 않아도 된다. 목회설교는 가랑비이다 -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게.

◀부흥설교는 짧아야 한다. 부흥설교는 短期戰이기에 그 기간 내에 승부를 보아야 한다. 부흥설교는 소낙비이다 - 잠깐 동안에 흠뻑 젖게 속전속결로 승부를 건다.

3. 한 Time 부흥회의 효율적인 構造

1) 始作과 同時에 讚揚과 祈禱로 뜨거운 聖靈氣를 만들어라(약10분-20분)

2) 말씀을 짧게 傳히라(約 40分-1時間) - 大旨 3個 정도가 적당하다.

3) 설교한 대지를 가지고 기도. 불을 다시 불어라(약20분-30분). (聽衆의 머리 속에 대지 3개를 심어주지 못하면 失敗의 설교이다)

건강칼럼
지난호에 이어

우울증은 결코 정신과에서 다루어야 하는 병이 아닙니다!(2)

저 유명한 수정교회의 솔러(Robert Shuler)목사처럼 교인들이 새로운 개혁을 통한 변화를 실행함에 있어서 그가 배운 심리학적 원리들을 목회에 적용한 결과 교인들이 말씀을 통한 회와 회개와 변화를 겪어야 하는 성도들을 믿음 망각한 나머지 새로운 개혁(Reformation: 솔러가 말하는 개혁은 종교개혁자들의 개혁이 아니다)을 통한 성도들의 변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죄와 회개 은혜와 용서 등의 개념보다는 긍정과 적극, 변화와 창출되는 부, 새로운 시각을 통해서 보는 열린 신세계의 개념 등으로 성경을 바꾸어 설명한다. 죄를 지은 사람이 죄를 생각하면 우울해지고 또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죄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리고 항상 밝은 모습으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살라는 식의 비성경적인 주문을 함으로서 성도들이 죄와 회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용서의 개념을 잃어버리게 만든다. 죄가 주는 영향력 때문에 가지게 되는 죄책감이나 혹은 극심한 죄로 인하여 정

는 새로운 복음이 바로 솔러의 긍정적인 사고 방식의 복음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성경적인 생각들과 관점들이 학문 혹은 임상 이라는 개념들을 타고 교회 안에 흘러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단적인 사상들이다. 솔러의 교회에는 대부분 세상이 말하는 우울증 환자들이 별로 없다. 왜냐하면 그 교회는 더 이상 죄의 문제가 그리 큰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극심한 죄를 지은 사람일수록 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살면 그가 하나님께의 축복을 받는 사람으로 둔갑(?)하기 때문이다. 수정교회의 예배시간에 반드시 등장하는 것이 솔러식의 복음을 가진 사람이 큰 복을 받고 엄청난 거액을 헌금하고 또 그 헌금자를 소개하면서 박수를 치는 행위를 하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서 자신들도 그러한 긍정적인 사람이 되려고 애를 쓰는 동기가 포함된 행동들을 유발해 낸다. 이러한 것을 솔러는 "복음의 능력"이라고 표현한다. 하지만 이러한 것은 결코 새로운 개혁도 아니고 복음의 능력도 아니다. 세상 것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죄인 됨이 나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비성경적인 헛된 철학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는 죄 속에서 헤매이는 사람들의 모습, 죄의 속성과 오염에 대해 단 한번도 [실수] 혹은 [질병] [장애] [병] 등으로 언급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성경에서는 교회에서 자주 사용해야하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사라져버린 성경적인 단어 [죄] 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병리학적 모습은 [환자]들의 모습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성도들의 모습에서 [병]이라는 단어를 찾으려는 의사가 상담자들이 있다면 이들은 죄의 속성이나 인간의 타락된 성품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하나님의 백성을 가장한 헛된 세상의 철학을 추구하는 사람일 수가 있다.

몇 번을 말해도 부족함이 없는 말은 - 죄인이 분명히 회개하고 증생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속성이나 옛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은 [병리적인 모습]이 결코 아니다 라는 것이다. [정신

병리] 라는 단어보다 [성화] 혹은 [포대를 향하는 삶] [이루어 가는 구원] 등등과 같은 성경적인 단어들을 사용하는 것이 옳다. 죄악 된 자신의 모습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며 날마다 자신을 쳐서 십자가 앞에 복종시키는 삶의 모습은 [병자]의 모습이 아니라 [성화]를 이루어 가는 성도의 모습이 이기 때문이다. 목회사역의 현장 속에서 보면 ... 성도들이 이상한 모습을 보이거나 알코올, 약물 등등과 같은 것에 중독(?)된 모습(사실 개인적으로는 중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술을 마시는 죄, 약물을 통해 자신의 몸을 망가트리는 죄 ... 라고 부른다는 보이는 사람들을 보면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인들을 다루려고 하지 않고 교인 중에 있는 정신과 의사나 기독교상담사 혹은 타 교회에 있는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보내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들을 본다. 참으로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일이다. 이 시대를 사는 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지킴과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다음호에 계속

경중노회가 聖敬老會로 개명



글쓴이 김주원목사는 한국성경적 상담자협회 대표로 사역하면서 미국 국제성경적상담자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Biblical Counselors, COO)의 한국멘토로 사역을 하고 있으며, ARM(Addicted to Recovery Ministries)의 한국대표로 섬기고 있다. 한국의 알코올 약물등 각종 중독에 관련되어진 사역을 하면서 알코올중독전문사역교회 새울교회에서 젊은 이들과 함께 즐겁게 사역하고 있다. (010) 2252-2934



대 한에 수교장로회(웨신) 경중노회가 성경노회와 중경노회로 각각 분리되어 개명된 노회 이름으로 예배가 드려졌다. 지난 3월 19일 오전 11시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소재 이레교회(김준상 목사)에서 노회장 이기식 목사 사회로 1부 예배가 진행되고 총회 회계 김태곤 목사 기도와 중경노회장 정경렬 목사가 성경봉독을, 총회장 장영기 목사가 "인물을 길러내는 요람"이란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이어 총회 부총회장 정기남 목사, 총회서기 신언창 목사가 축사를 맡았으며, 직전총회장 장창수 목사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어 2부 부노회장 원치홍 목사 집례로 성찬식을 거행한 후 오후 2시 의장 이기식 목사 사회로 3부 제9회 정기노회 회무처리에 들어갔다.

이날 5월 본 교단 체육대회 참가 여부와 노회 하계 수련회, 제9회기 총대 파송 선정과, 노회원 영입에 관해서, 준목 인하여, 임원 보선 등을 안건심의가 이루어졌으며, 회계 김준상 목사 사회로 제4부 폐회에배에 들어가 노회장 이기식 목사는 "먼저 된 자의 모습을 갖자"는 말씀을 선포했으며 노회장 축도로 제9회 춘계 정기 성노회를 모두 마쳤다.

한편 경중노회에서 중경노회로 노회명칭을 개명한 한현석 목사는 지난 3월 18일 총회장 장영기 목사와 총무 김병수 목사를 초청, 총회장 장영기 목사가 말씀을 선포했으며, 새롭게 노회를 중경노회로 개명하고 출발하는 노회원 모두를 위로와 격려로써 축하했다.

축 부활 - 2009년 부활절 예수 다시 사셨네!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성교회



담임 장상수 목사

부목사	전정우
안수집사	윤호영, 김유현, 이두경, 조자중, 정영문

말씀으로 무장화!
기도로 능력화! 생활로 향기화!

447-140 경기도 오산시 결동 651-1
Tel : 031)373-1151, 377-9372
FAX : 031)372-2583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중앙교회



담임 장영기 목사

주일 낮: 오전 11시 / 오후 2시
수요기도회: 저녁 7시 30분
새벽기도: 오전 5시 30분
주일학교: 오전 9시 30분
학생회: (토) 저녁 7시

서울시구로구구로5동531-4번지
☎(02)838-2208 팩스(02)838-2207

“가족같이 가정같이 평안하고
-은 세상을 향하여
천국복음을 전파합니다.

행복한 교회”



담임목사 장승현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천국복음을 증거합니다.
죽은 영혼, 침체된 영혼에 생기가 들어옵니다.
반드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납니다. 확신합니다.
참 진리의 목마름을 느끼는 곳에 찾아옵니다.
011-9027-9712

대/한/예/수/교/장/로/회 평인교회
충남 당진군 송악면 봉교리 55-6 Tel, 041)356-0644 / Fax, 041)356-0646
E-mail : sunghyun732@hanmail.net H · P : 011-9027-9712

대한예수교장로회

개척교회



담임 정재규 목사

(우 153-837)
서울시 금천구 시흥 4동 3-64번지
☎.02)803-4549

제31대 감리교부흥단 대표단장 전태규목사 취임예배

「포도원의 품꾼으로」출판기념회 열어



제31대 기독교대한감리회 부흥단 대표단장 이·취임 감사예배가 지난 4월 3일 오전 11시 한양대 동문회관 대연회장에서 있었다.

이날 제30대 대표단장 김종호 목사(온천제일교회)가 이임하고, 제31대 대표단장으로 전태규 목사(서광교회)가 취임식을 가졌다.

전 목사는 “무엇보다 이 자리에 아

버지가 계시면 기뻐하셨을 것”이라며 “아버지는 하늘나라에서 기뻐하실 것이고 이 자리에 어머니가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인사했다.

또한 “대표단장을 통해 3가지를 가슴에 품고 뛰겠다”는 약속과 “교회마다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는데 부흥집회를 많이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러 “감리교의 영성운동에 최선을

다해 여름성회를 훌륭하게 이루고자 한다”며 “특히 감리교세가 열악한 호남에 집중하겠다”고 피력했다.

또 “감리교 부흥단은 부부영성수련회를 만들어 일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1부는 예배, 2부는 대표단장 이·취임식, 3부는 출판기념회로 진행되었다.

1부는 임흥란 목사(상임부단장)이 사회를 맡았으며, 이승호 목사(전임단장 협의회 총무)가 “나를 충성되이 여겨”라는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이 목사는 “충성은 믿음만한 사람이라고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다”고 했다.

또한 “부흥단의 성공은 모이는데 있다”며 “충성되게 여김 받는 부흥단을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출판기념회에서는 전태규목사가 쓴 「포도원의 품꾼으로」 김광덕 목사(홍보출판국 총무)가 서평을 나섰으며, 육명길 목사(호남선교연회 단장)가 축시를 낭독했다.

백장흙 목사 21C부흥선교협의회 대표총재 취임가져



21C부흥선교협의회(총재 고용복 목사, 대표회장 정재규 목사)는 3월 20일(금) 오전 11시 강남구 도곡동 한우리 성결교회에서 제15차 총회와 함께 신임 대표총재 백장흙 목사(한우리교회)에서 취임 감사예배를 드렸다. 교계 목회자들과 단체 회원 및 성도들 350여 명이 참석한 이날 21C대표회장 정재규 목사 사회로 진행된 예배에 옥수순 복음교회 최기순 목사 기도와 감리교

증경감독회장 김진호 목사가 설교를, 한기총 직전대표회장 이용규 목사, 현 대표회장 엄선형 목사 등이 축사를, 이만신 목사가 축도에 나섰다.

이어 직전 총재 고용복 목사, 신임총재 백장흙 목사에게 각각 공로패와 취임패가 전달 됐다. 또한 2부 단체창립 15주년을 기념, 복음가수 김석균, 지영, 김현석, 김선미 아이노스워십선교단, 마리아찬양단, 아가로스 중창단 등이 출연하여 은혜 찬미찬 축제가 되었다.

21C부흥선교협의회는 1994년 봄에 창설되어 현재 선교하는 부흥단체로 그 위상과 목적에 최선을 다해왔다. 고 김우영 목사를 비롯 피종진, 백문현, 박태희, 나경임, 김조, 고용복, 김용환, 성훈기, 김명현 목사 등이 단체를 이끌어온 업적과 공로로 그 열매가 풍성하다.

지난 15년간 선교사를 협력하고 단체를 활성화 하는데 역량을 집중한 결과 현재 36개 국가에 선교사를 파송,

후원하고 있다.

또 아프리카 케냐에 케베라 유아학교 건축, 남아공에 선교센터를 건축하고 동남아시아, 남태평양 등 어렵고 힘든 곳을 찾아 선교의 지경을 넓혀가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95년 양재동 햇불 선교센터에 장애인 2천명을 초청 전국 장애인선교대회와 환경사랑 대축제, 21C선교신학원 운영, 대륙별 선교대회 등 열정이 넘친 사역을 감당해 왔기에 이 사역을 더 확대해 나아갈 것이라고 했다.

이 외에도 “21C기독교공동체”를 통해 영성을 키워가고 있으며, 매주 화요일 21C찬양교실을 무료로 운영하는 가운데 유망 복음가수와 성도들이 찬양으로 힘을 얻고 행복을 만끽하고 있다. 본 단체가 역점을 두고 있는 두 가지 사역으로는 첫째가 선교사 손잡아주기 벨트운동이다.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하나의 끈으로 이어가게 하는 운동으로 외롭고 힘든 선교사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또 하

나의 주요사역으로는 내년 봄 2010년 족대성회를 서울과 지방 대도시를 중심으로 개최할 계획이며 10만 명 이상이 모이게 될 본 성회는 한국교회를 깨우는 성령운동이 크게 일어나며, 사무총장 유근만 목사는 “지금껏 참 어렵고 힘든 페이지지만 한국교회 제 2부흥의 기회가기도 하다”며 “한국교회가 힘을 모은다면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대표총재 백장흙 목사 약력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계명대학교 대학원 졸업
- 플러신학대학원 목회학 박사
-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부흥사회 역임
- 회장 역임
- 서울신학대학교 후원회장 역임
-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선교사후원회 원장 역임
-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장 역임
- 21C부흥선교협의회 상임총재 역임
- 현 한우리교회 담임

웨신총회 중앙노회 늘사랑교회입당예배드려



대한예수교장로회(웨신) 중앙노회(노회장 정일량 목사)는 지난 4.11(토) 오전 11시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소재 늘사랑교회(담임 손성규 목사)에서

입당감사예배가 손성규 목사 사회로 진행되어 노회 서기 손백두 목사가 기도, 회의록서기 정광철 목사가 성경봉독을 하고 늘사랑교회 중창단의 특

별찬양에 이어 증경노회장 임철환 목사가 “본이 되는 믿음의 요소”라는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또 손찬현 목사 내외가 거룩한 성전과 그 외 1복조 맞추어 복음으로 영광을 돌렸으며, 회계 김병호 목사는 헌금기도를 했다.

이어 노회장 정일량 목사가 입당에 대해 선포를 하고, 사랑의빛교회 안재왕 집사가 축가를 통해 부흥회장 정기남 목사, 소망교회 노찬현 목사 등이 축사를 하고, 증경노회장 김용진 목사 축도로 마쳤다.

이날 입당예배를 드린 늘사랑교회는 2003년 5.1일에 첫 예배를 드렸으며, 2008년 1월에 예배당 기공식 예배와 2008년 12.15일 준공감사를 끝마치고 2009년 4.11일 입당예배를 드렸다.

예수님의 상담원리 ⑤ 상담과 라포(Rapport)



백문화대학 초영길 교수
(본지 논설위원)

30대 초반 가정주부의 하소연이다.

자기는 서울의 명문대 출신이고 남편은 지방 대학 출신으로 교회에서 만나 신앙하나로 맺어 결혼생활을 하고 있다고 했다.

남들이 볼 때는 다복하고 사랑으로 가득한 가정으로 여겨지지만 남들이 알지 못하는 내면의 문제가 있어 힘들다고 하면서 어떤 때는 벽을 대하는 것과 같은 절박감을 느낄 때가 있다고 하소연했다. 남편의 신앙적 열정과 순수함이 좋아서 결혼했는데 때때로 다가오는 문제들이 너무 힘들어 앞이 보이지

이혼문제로 상담을 요청한 여인

않는다고도 했다.

나는 이 문제는 남편의 열등감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남편과의 문제가 생길 때마다 미루지 말고 그때 그때 대화로 풀라고 조언을 해주면서 서로의 약점을 덮어 주고 자신의 잘못을 사과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대화를 통해 서로의 경험과 감정과 행동을 의식하고 동일화함으로써 무의식 가운데 발생하는 심리적인 힘을 통해 문제해결을 가져올 수 있다. 그 후 한 달 정도 지나서 부인은 많이 좋아졌다고 알려 왔다.

대화는 마음의 세계를 이해하는 공감적 이해의 첫 단계이다.

공감적 이해란 ①내담자의 입장이 되어서 그를 이해하는 것이다. ②내담자의 입장이 되어서 그가 서 있는 자리에서 보는 것이다. ③내담자가 지닌 감정, 의견, 가치, 이상, 고민, 갈등 등을 가지고 그가 처해있는 여러 상황 속에서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담자는 내담자가 하는 말의 이면에 포 함된 감정까지 이해하며, 내담자의 비언어적인 표현에 담겨진 의미와

감정, 내담자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동기를 이해하는 것이다.

만약 공감적 이해가 인격관계 형성에 필수적인 요소이고, 상담에서 친밀관계 형성(rapport)이 필요조건이라고 한다면, 공감적 이해가 선행되지 않은 상담은 효과적이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공감적 이해는 일반 상담뿐 아니라 목회상담에서도 필요한 상담의 과정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성경 요한복음(12:1-8)에 “발 밑에 여인 마리아”의 이야기가 있다. 내용은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을 때 제자 중 하나인 가롯 유다가 이 향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좋지 않냐고 비난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동을 제지 하지 말라고 하셨다는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에서 가롯 유다의 말은 타당성이 있어 보이며 다른 제자들도 동조한 것으로 알 수 있다. (마26:8-9) 그러나 예수님은 가롯 유다의 말 자체를 공박하지 않고, 예

수님은 마리아의 행위에 대해 저를 가난 두어 나의 감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고 하셨다. 예수님과 마리아의 이런 행위와 대화는 공감적 이해의 바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6월 후에 다가올 예수님 자신의 죽음에 대해 제자들보다 민감한 반응을 보인 마리아의 헌신을 칭찬했으며, 공감적 참여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목회상담은 전인적인 관심을 가지고 상담에 임한다. 그리고 목회상담자는 두 가지의 목적과 관심을 가지고 상담한다. 그 하나는 인간의 삶의 모든 차원들 - 육체적, 정신적, 관계적, 사회적, 자연과의 관계 등 -을 완전케 하는 전인적인 인격완성의 책임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러한 인격의 모든 차원들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영적인 관계를 가지도록 돕는 신앙적 관심이다.

그러므로 목회상담은 공감적 이해를 넘어서 내담자의 전인적인 삶에 참여하는 공감적 참여에 기초하게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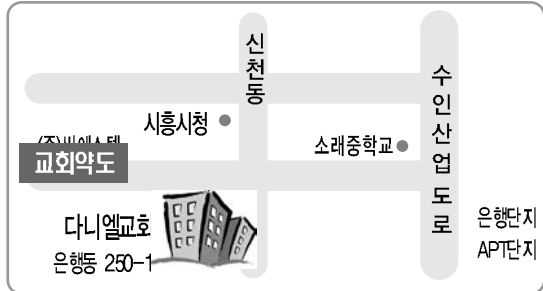
축 부활 - 2009년 부활절 예수 다시 사셨네!

대한예수교 장로회 다니엘교회

표어: 말씀이 용하는 교회(눅 4:21)
오직기도, 오직전도, 오직예수, 오직믿음

하나님이...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단 1:17)

담임 고성규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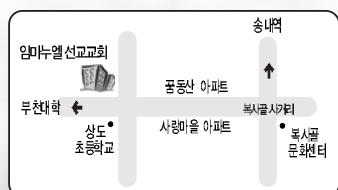


교회 031)313-3464, 312-2613
경기도 시흥시 은행동 250-1
http://daniel.onmam.com

임마누엘 선교교회

현 병 우 목사

주일예배: 오전 11시/오후 찬양 2시
수요예배: 오후 7시
금요철야: 오후 9시
월·화 영성사역: 오전 1시/오후 7시



임마누엘 영성원
☎. 011-9710-9190
경기도 부천시 원마루 상동 420-1



참 좋은 교회를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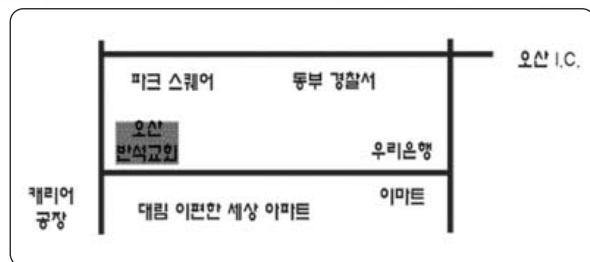
오산반석교회는 행복한 인생으로

삶을 설계하는 인생 디자인센터입니다.

1. 사람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2. 행복을 만들어가는 교회입니다.
3. 인생을 클리닉하는 교회입니다.
4. 신앙으로 양육하는 교회입니다.

담임목사: 김봉주

찾아오시는 길



예·배·시·간

주일새벽예배	오전 06:00	주중새벽예배	오전 05:30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저녁 8:30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	주일학교	오전 9:20
수요예배	오후 7:30	WIVA영재교육	오후 1:00 (토)
알파파정	오후 6(주일)	중·고등부	오후 9:30 (주일)
디사이폴스	오후 7:30 (화)	청년부	오후 7:30 (토)

대한예수교 장로회 오산반석교회

오산시 원동 845번지 양우프라자 8층 Tel : 031)378-9349
인생상담 및 신앙상담 : 010-2378-9349
http://www.반석교회.kr

구원론 (1)

구원은 오직 예수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기 때문이다. 성경에 기록된 이 절대적 은혜이며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마1:21-22, 4:11-12) 오늘날 수많은 교회의 상당수가 그 놀라운 은혜 안에 들어가지 못하여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의 기쁨과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더욱이 요즘은 성경적으로 이단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 많은 집단들(예호와 증인, 안산흥화, 구원과, 회개과, 신천지, 등등)로 인한 폐해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으며, 여기에 대한 대처와 예방이 시급한 과제로 다뤄져야 할 줄 압니다.

성령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신 수많은 이단들 또한 그들의 교리와 그에 대처하는 진리의 말씀들이 저에게도 있으나 그러나 우리가 확실하게 돌아보아야 할 것은 지금 많은 교회들이 계획하고 시도하고 있는 그 대처방법(이) 과연 어떠한가입니다.

예로 들자면 신천지 사람들이 교회와 교회안의 성도들에게 접근하는 방법과 수단을 파악하여 거기에 대처 방법을 성도들에게 교육하자는 방안 등

이 한 예라 하겠는데, 그 방안이 유익하지 않은 것은 아니겠으나 그보다 신천지와 같은 이단 집단에 미혹당하여 끌려가며 또 한번 끌려가면 왜 빠져 나오지 못하는가가 최우선으로 돌아보아야 할 과제 일 것입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으나 그들 거의 모든 사람들이 교회생활은 오래 했으나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데에 놀라움을 지니 경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단에 속한 자들이 집중적으로 공략하며 접근 하는 것은 세상에 속한 일반인들이 아니요 교파가 붙어 있는 집과 교회에 다니는 신자들인데,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등으로 접근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악담으로 인한 원죄 = 롬5:12-18, 고전15:21-22와 허물(모든 우상숭배와 물욕 탐욕 음욕 생각으로 지은 허물 = 막7:20-23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보배로운 신 물과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허물(롬2:1-5)에서 구원하셨고 죽으시고 삼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과 영생(요일5:11-12과 성령(마3:11, 요14:16-17)



임미뉴엘선교교회 담임 한병우 목사(본지 부사장)

을 주시는 우리의 그리스도시며 주이시며 하나님(요20:28)이시라는 이 간단하고도 명확한 진리를 알지 못하여 마귀가 주는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히2:14-15)와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으로(전3:11) 영생 구원이 있다는 하나님이 피로사신 교회에 나왔으나 멸망에 저주로 끌려가는 자들의 고통을 너무도 애 통하게 생각하며 교회의 마리아신 하나님의 아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지면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내 안에 모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은혜이며, 각종 이단들에 대처하는 최상의 대책이요 진리인지 알려 모든 영광 예수님께 돌려드리며 다음 시간에 더욱더 확신하며 자세한 구원의 진리와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과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종성 박사, 웨신대학원 제4대총장 취임식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강당에서 웨신대학원 제4대총장 취임식이 지난 3월 17일 오전 11시 부총장 권문상 박사의 사회로 거행되어 '생존하는 교회사적인 인물로 추앙받는 이종성 박사(88세)'가 고령의 나이에 웨신대학원 총장에 취임을 가져 한국교회사에 기록될 만한 놀라운 일이다.

이종성 박사는 성경말씀을 기초한 복음주의적 신학을 굳건히 세우며, 21세기 한국교회를 개혁하며 이끌어갈 목회자와 성도들을 양성하는 일에 웨신대학원의 최고의 교수진과 함께 섬겨나갈 것을 약속했다. 취임사에서 이 박사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이루어진 일이기에 감사드리며, 웨신대학원의 훌륭한 교수진들과 함께 한다면, 한국신학의 중심으로 한국교회개혁의 심장부로써 우뚝 설 것을 확신하여 총장직을 수락합니다." 라고 말하고, 나아가 "건강이 허락하는 한 생의 마지막 불꽃을 신학교육과 통전적 신학 저술에 온 힘을 쏟고자 하며," 이 모든 일을 다음과 같은 표현으로 정리하였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Soli Deo Gloria)!"

이날 기도에도 서울사회복지대학원 총장 권용상 이사, 성경봉독에 신원우 박사, 설교에 한국기독교선교100주년기념사업회 이사장 정진경 박사는 빌립보서 3장 12-14절로 '노경의 미덕'이란 제하의 말씀으로 사도 바울처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



히 이부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좇아가노라' 형제들이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꾀대를 향하

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좇아가노라" 고 외친 말씀처럼 88세의 고령의 이종성 박사의 새롭게 시작하는 신학교육과 한국교회의 신학창달과



장복 박사, 총신대학교 부총장 심창섭 박사, 덕수교회 당회장 손인웅 박사 등이 각각 축사를 맡았다.

◆이종성박사 약력 및 저서◆
1959~1965 연세대학교 교수
1966~1988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1971~1983 장로회신학대학교 학장
1990~현재 한국기독교학술원 원장
12권의 조직신학대계를 포함해 60여권 현재 통전적 신학을 저술 중

대전 리영수기자

대전 2009년 부활절 연합예배

교단대표교회목회자 및 기독교관장 초청기도회

3월 19(목) 오전 7시 새로남교회 대 전시 서구 만년동 286 그레이트홀에서 4월 12(주일) 부활절 연합예배를 위한 대표교회 및 기독교관장 초청기도회가 있었다. 이날 기독교연합회 회장이 기복(선화감리교회) 감독은 고전 10:31.2을 본문으로 "이번 부활절 연합예배를 통해 교회가 크게 연합하고 대전시가 축복의 도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위원장이신 오정호 목사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라고 말하고 열 가지의 한마음 기도제목을 가지고 뜨겁게 기도했다.

이 번 4월12(주일) 부활절 연합예배는 오후 3:30에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드려지게 된다.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대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고 참여하길 기원했다.

부활절 연합예배를 위한 교단대표교회목회자 및 기독교관장 초청기도회 한 마음 기도제목

1. 부활절연합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의 영광만 충만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2. 부활절연합예배가 교회의 연합과 일치 기폭제가 되게 하옵소서

3. 각 교회 담임목사님과 직분자들이 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함께 협력하는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4. 부활절연합예배를 통하여 각 교회의 새로운 부흥과 성장의 출발점이 되게 하옵소서
5. 부활절연합예배를 통해 대전성서회와 복음회의 가속도가 붙게 하옵소서
6. 대회를 비롯한 앞서 일하는 직분을 맡은 분들의 회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여러 교회의 귀감이 되게 하옵소서
7. 부활절연합예배 당일의 날씨와 교통편과 안전을 지켜주옵소서
8. 설교재가 기복 대회장을 비롯한 모든 순서 맡은 분들의 영성과 건강을 최상의 상태로 지켜주옵소서
9. 성도들은 물론 시민들도 참석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10. 모든 순서가 참여하는 분들에게 큰 은혜와 복으로 임하게 하옵소서

대전 리영수기자

아무개라고 불리우는 사람(마 26:17-19)

우리 나라 충청도나 전라도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 "거시기"라는 말이 있다.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들으면 참 애매 모호한 말이 "거시기"라는 말이다. 뭔가 분명하지 않아서 듣는 사람이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가 상당히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거시기"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말을 아주 편하게 사용하고 듣는 사람도 아주 편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거시기"하면 다 통한다. 그렇지만 그 불분명한 언어습관 때문에 그 지역의 발전이 늦어질 수도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나는 개인적으로 "거시기"문화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 말 자체가 말하는 사람도 주관적이고 듣는 사람도 주관적이기 때문에 객관성을 상실

할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옛날과 같이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법이 단순하고 생각이 단순할 때에는 별 문제가 없었지만 지금과 같이 복잡한 사회구조와 다양한 삶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정 확하고 분명하게 의사전달이 되지 않으면 그 반응이 너무나 다른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거시기"와 비슷하게 사용되는 단어 가운데 "아무개"라는 말이 있다. "거시기"는 모든 사물과 사건을 통 털어서 작용하는 단어라면 "아무개"는 어떤 사람을 일컫는 말일 것이다. 어떤 사람을 꼭 집어서 이야기하지 않아도 "아무개"하면 그것이 누구인지 통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말 가운데 마태복음 26장 17절에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라는 말이 나온다. 그 배경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유월절 만찬을 함께 해야 하

는데 제자들이 그 장소를 예수님께 묻습니다.

지금은 집에서 손님접대를 많이 하지 않지만 당시에는 주로 집에서 접대하는 풍습이 있었을 것인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12제자들 그리고 그 집 식구 몇 합하면 20여명은 축하되었을 것이다. 20여명의 식사준비를 집에서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이다.

그때 예수님은 그 만찬장소를 말씀하시면서 "아무에게 가서"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그 말에 제자 묻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보아서 누구의 집을 뜻하는지 어려움 없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후에 그 "아무개"가 아주 기쁜 마음으로 여러 번 예수님 일행을 접대했고 예수님의 일행은 부담 없이 그 집을 이용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날도 거기에서 저녁식사를 계획하셨



대광교회 담임 임영수 목사

던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 가운데 어떤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에 "아무개에게 가서 이야기 해봐!" 그러면 "아 아무개가 있지" 이렇게 이야기 할 수 있는 "아무개"가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굳은일 힘든 일이 있을 때 "아무개만 있었더라면..."하고 이야기 할 수 있는 그 "아무개" 이것은 모두가 인정한다는 말이 아닐까?

"아무개"는 정말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닐 것이다.



▲기도회를 마치고 참석한 목사,기관장,장로들과 함께

지저스타임즈(www.jntv.kr)신문 적극추천
에두알과 나의 결혼 설계

토탈웨딩 **에두알** 신문사 문의: 대표이사 정기남
011-468-6574

작은 준비가 큰 결과를 만듭니다. **불경기속 결혼준비!**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알뜰하고 합리적인 결혼준비 에두알이 있습니다.

▶ 예물, 한복, 침구 신혼여행, 웨딩드레스를 한곳에서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 금, 다이아몬드를 모든 분들의 가정에 도매가격으로 해 드립니다.
▶ 교회 임직 및 침순·회갑 한복을 특별가격으로 모시겠습니다.
▶ 저희 매장에서 구입하시면 예산을 대폭 절약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누구를 어떻게 만나야 하는가? **나의 결혼 설계**
원하는 배우자를 **에두알**이 도와드립니다.

기독교인 교우 환영
초혼 재혼 무료접수

지역지사장 모집(장로·권사)
합동축 경기도회 광천교회 임평소 장로
070-8251-6622 / 011-432-2122

문의전화 : 02-2272-5261, 735-5269 http://weddingetoile1.cafe24.com
서울시 종로구 인의동 48-26 경찰공제회관 12층 전관(호선 종로5가역 12번출구 도보 3분)

■ 가정 예배 ■



권 세 능 목사
평택주천성교회담임, 본지 상임이사

오늘의 예배 / 찬송 278장

신 10:12~22 하나님에 원하시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제사를 지내고 또한 율법을 지키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본문 12-13에서 직접적으로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라.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모든 도를 행하라.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길로만 걸으라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주어지는 특별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오늘의 예배 / 찬송 507장

빌 2:5~11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 이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영광 버리고 인간이 되셨습니다. 또한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 죽으시기 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겸손의 모델이며 극치입니다. 성도는 주님을 닮아 겸손해야 합니다.

옛날 제나라 정승 안자의 마부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마부의 아내가 정승 안자가 탄 말을 끌고 가는 남편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정승인 안자는 말을 타고도 몸을 앞으로 굽히고 가는데 자기 남편은 허리를 뒤로 젖히고 배를 내밀고 정승보다 더 등등하게 걸어 다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마부에게 여보! 안자는 정승이라도 몸가짐이 조심스러운데 당신은 한낱 마부로서 무엇이 그리 의기양양하고 하고 남편을 나무랐습니다. 그 뒤로 마부의 행동이 겸손해졌다. 그 후 안자는 왕에게 천거하여 그에게 대부라는 벼슬을 주었다고 한다. 이와 같이 겸손하면 높이 오르게 된다.

오늘의 예배 / 찬송 482장

단 10:1~3절 기도의 능력

다니엘은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할 때 예루살렘에서 제1차포로가 되어 다른 많은 왕족, 혹은 귀족들과 함께 어린 시절에 끌려간 사람입니다. 그 후에 오히려 이 다니엘은 비록 포로가 된 백성 중의 하나에 기는 했어도 그의 우수성과 탁월성이 인정되어 바벨론 제국의 총리가 되었으며, 그 후에 세로 일어난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역시 총리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기도는 모든 문제들을 제압했고 그 일로 인해 다니엘은 더욱 높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까? 기

도하세요. 기도하는 능력 있는 성도. 권세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이 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예배 / 찬송 178장

엡 5:15~21절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이 세상에는 믿음을 무너 뜨리는 요소가 여러 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언제나 성령 충만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충만이란 지배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성령의 지배와 인도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강원도 예수원에서 사역하셨던 대전목 신부님은 성공회 신부님이신데 그분 할아버지인 R. A. 토웨이 목사의 글에는 성령 충만이 자주 강조됩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한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게 될 하루 나는 너무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가정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예배 / 찬송 324장

잠언 17:18~19 교만하면 망한다.

미국의 정치가이자 사상가였던 벤자민 프랭클린은 빈한한 가정에서 출생 하였지만 무척 총명 하였고, 독립선언서를 기록한 것과 피뢰침을 발명함으로써 그 박학다식함을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았습다. 하지만 그는 한때 자랑과 교만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배척당했던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자서전에서 젊은 시절의 쓰라린 기억을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나는 어떤 자리에서건 이론적으로 남에게 뒤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똑똑하면 사람들이 나를 따

를 줄 알았다. 그러나 나이가 들었을 때 나는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나를 깨달았다. 그것은 나에게 승리가 아니라 패배였던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깨어서 교만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성도가 됩시다.

오늘의 예배 / 찬송 440장

눅 12:13~21절 우선순위

두 나뭇꾼 친구가 산에 올라갔습니다. 경쟁적으로 도끼로 나무를 찍어서 장작을 만들어갑니다. 한사람은 유달리 승부욕이 강해서 잠시도 쉬지 않고 열심히 나무를 찍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친구는 50분일하고 10분 정도 쉬면서 앉아서 잠시 팔도 뻗고 휴식을 하면서 일했습니다. 어느덧 산을 내려갈 시간이 되어 두 사람은 각자 서로가 수고한 결과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것일까요? 쉬어가면서 일한 친구가 더 많은 장작을 장만 했었습니다. 승부욕이 강한 친구는 고개를 가우뚱거리면서 투덜거렸습니다. 그러자 다른 한 친구가 점잖게 설명했습니다. 나는 10 분씩 쉴 때마다 도끼날을 갈았대.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끼날 무디어 지는 줄도 모르고 댔어놓고 열심히만 다고 되겠습니까? 아무리 바쁘다 해도 경건의 시간 - 하나님 앞에서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자기 존재의 실상을 경계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안목을 항상 지니고 기르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경건이 요구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예배생활 기도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서둘러야 할 시간에도 경건이 먼저 있어야 하겠습니까.

부활의 세가지 의미

부활의 은총은 새롭게 살아가는 은총입니다 부활이란 말은 헬라어로 "일어나"를 뜻하는 말이다. 성경적 의미의 부활은 죽은 사람의 몸과 영을 되살아나게 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뜻 합니다. 부활은 예수그리스도를 통해 확인 되었으면 예수그리스도는 다시 죽지 않는 삶이 부활인 것을 확증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살리신 세 사람 아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과 나사로를 통하여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음을 주님은 보이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살 것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살 것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을 보이신 것입니다.

부활이란 낱말의 용법을 분류하여 보면 보통은 죽은 자가 다시 살 것임을 분명히 하신 말씀입니다. 부활은 신약적 용어입니다. 구약에는 한번도 나타나지 않지만 신약에는 수십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구약 속에서 1414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라는 말 씀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다시 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부활은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분명히 있고 예수님은 부활 하셨습니다.

부활은 영원히 사는 약속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요 4:14, 요 6:25, 요 6:58) 하나님은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보이시기 위하여 예수를 죽이지 않고 데리고 가셨습니다. 엘리야는 불 병거를 탄 채로 데려 가셨습니다. 그들은 영원히 죽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요 11:25-26) 부활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실 수 없는 죽음을 죽으셨고 우리는 죽을 수 있는 죽음을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죽음을 죽으셨고 우리는 죄의 대가인 죽음으로 죽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사신 죽음을 죽으셨고 우리는 예수님이 살리셔야만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죽을 수 없는 죽음이기에 때문 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선이 다시 사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요 2:19절)

우리가 다시 살 것을 보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심을 우리가 다시 살 것을 증명하여 보이신 사건입니다. 단 하나의 다른 점은 예수님은 스스로 사 단어입니다. 구약 속에서 그분을 통하여 사는 사람이라 것입니다 우리는 이생에서 생명을 공급받아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은 후 부활 때에 다시 생명을 공급 받아 살게 될 것입니다. (롬 6:4, 고전 15:22)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우리를 위해 살았습니다. 몸의 부활이 없으면 영원히 사는 것도 없



권선교회 총무 김병수 목사

습니다. 부활은 계속 되는 작업입니다. 토마스 왓슨 "우리는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 보다 부활 때에 무덤에서 일어나는 것을 더 분명하게 확실해야 한다. 부활의 확실성은 우리가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것보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웨스컷 감독은 '부활절 선물은 부활의 능력에 대한 해답이요 오순절 선물은 승천의 능력에 대한 해답이 된다' 다시 말하면 부활절의 선물은 살려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제 부활의 영광도 함께 누립니다.

롬 6:5에서 바울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은 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로 연합된 기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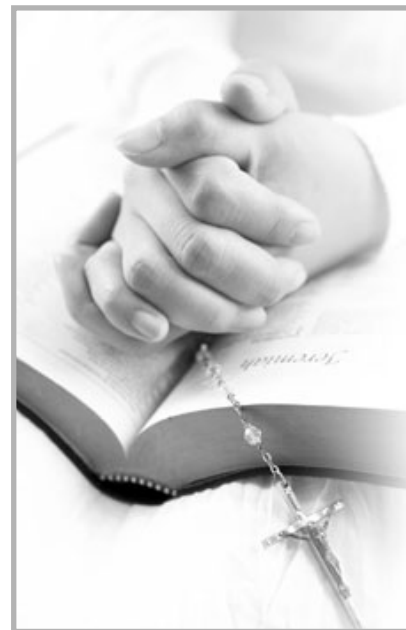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 설 교 집 : 교정 교열때문에 고민하셨다면 저희에게 맡겨주십시오. 전문 교정 인력과 신학전문 감수위원이 있어 주일 설교원고만 주시면 설교집을 멋지게 만들어 드립니다.

■ 교회신문 : 해당교회에 맞는 기획과 원고아이템을 제공
• 내용과 어울리는 사진과 이미지를 다양확보
• 교회홍보와 소식지, 성도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필수아이템 교회신문 지금 시작하세요.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작업하는 곳! 나라의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나래이미지
Tel. 031)501-6713
Fax. 031)501-6773
H·P : 010-2872-0496



부활하신 하신 예수님

1. 이사가 선지자가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200년 전에 예언하기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여 예언대로 배들레헴 말 규유에서 나셨습니다.

2. 예수님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한 알의 밀밭도 땅에 묻혀 죽으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요 12:24 많은 영원을 구원하기 위하여 죽어 땅에 묻혔다가 다시 부활하시므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부활이었습니다.

3. 아담에 죄로 부터 온 인류가 죄에 값으로 멸망의 대상이었으나 예수님이 대신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와 인류에 죄와 벌이 사라지고 부활하신 예수만 믿기만 하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이 예수 죽음과 부활로 인한 인류 구속 사역의 크나큰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4.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에 죽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율법을 범한 죄 때문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재앙이었으나 죄 없는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류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5. 죄 값으로 죽어 부활이 없다면 구원과 영생이 있을 수 없었으나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류가 영생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6. 예수님은 믿는 자들의 죄를 예비 하시려고 승천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정자 믿는 자들을 데리러 오시겠다는 약속을 하시고 갈릴리 사람들 53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습니다.

7. 예수님은 꼭 다시 오시며 약속을 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재림 하실 때까지 보혜사 성령을 보 증으로 이 땅에 보내사 지금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의 몸과 마음을 보호해 주시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항상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결론 :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성령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 약속을 믿고 늘 기도하며 법산에 감사하여 항상 기뻐하며 사는 것은 다시 오실 주님을 성령님과 함께 기다리며 모든 시련과 시험을 이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항상 말씀 속에서 굳게 서서 날마다

죄와 싸워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입니다.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다시 오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는 매우 사악한 시대입니다. 순교적인 신앙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축 부활 - 2009년 부활절 예수 다시 사셨네!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천성교회

예배모습

담임 권세능 목사

예배안내

구분	시간	구분	시간
주일 낮 예배	오전 11:00	새벽 기도회	새벽 5:00
주일 오후 예배	오후 1:30	유초등부 예배	오전 9:00
수요 저녁 예배	저녁 7:30	중고등부	주일 오후 3:30
금요 찬양 기도	저녁 9:00	청년 회모임	토 저녁 8:00

451-806 경기도 평택시 평성읍 신궁리 245-4
☎. 031)656-5830
H·P 010-8585-9137

대한예수교 장로회

핵심교회

www.haeksim.net

Tel. 02)430-9107
Fax. 02)401-7954

서울시 송파구 거여2동 251-42호
(효성아파트 205동 앞)

이 선 목사

예배안내

기관	시간	장소
장년부	새벽 5:00	대예배실
	1부 주일 오전 7:30	
	2부 주일 오전 9:00	
	3부 주일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일 저녁 7:00	
	금요일 오후 8:00	

주일학교예배안내

기관	시간	장소
유치부	주일 오전 9:00	유치부실
유년초등부	주일 오전 9:00	어린이성전
중고등부	주일 오전 9:00	
	주일 오후 3:00	중고등부실
청년부	토요일 오후 7:00	제1교육관
성경대학	금요일 오전 10:00	제2교육관
새벽예배	매일 새벽 5:00	대예배실

와 보라! 영광제일교회로...

매일 밤마다 8시 기도회
매주 목요일 낮 2시 특별찬양치유

▶ 특별찬양 : 김명희 ▶ 드림 : 손정철 ▶ 피아노 : 김윤미

예배 시간 안내

주 일 낮 예배	오전 11시
주 일 오후 예배	오후 2시
수 요 예배	오후 7시 30분
목요찬양치유집회	오후 2시
금 요 예배	오후 8시
학 생 예배 (토)	오후 5시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5시
8시기도회(매일)	오후 8시

찾아 오시는 길

성남시청
영광제일교회
KFC
HOLLYS COFFEE
하나은행

지금 전화 한통화로 인생이 바뀝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461-192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 3422(교회)
Tel. 031-756-9826(교회) Mobile. 010-8200-7791

신학생 · 목회자 · 사명자 영성학교 오픈 준비중

교외부설 토요일부(초·중·고) 및 학기외(토요일) 피아노, 드림 플루트 문의: 010-6677-6886

성남시민을 위한 무료 재정상담 세미나!

강사 프로필

강사 송미순 목사

강의 내용

- 소득지출로 보는 우리가정
- 위험관리(보험) 알고 가입하자
- 세금절약예적금: 펀드 이해하기
- 돈에 시달리지 않는 가정을 위한 재무설계

강사 송미순 목사

- 포도재무설계 상담위원
- 한림성심대학 재테크세미나
- 네이버재테크 상담위원
- 네이버전문가 컬럼니스트
- MBC 생방송화제집중 부채클리닉 출연

세미나참석 전의견조사 12월말 010-6377-6886
☎ 031-756-9826
세미나참석 12월말 010-8200-7791

[사]한국개인운영신고시설협회 전국대회

개인운영신고시설의 향후 운영과 발전방향을 위한 세미나



(사)한국개인운영신고시설협회(대표이사장 정재은 목사)는 지난 3월 16일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인운영신고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향후 발전방향을 위한 세미나 및 전국대회를 열고, 현 개인시설의 어려운 형편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향을 제시했다.

대표회장 강재원 목사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회에서 개인복지라는 명분도 없는 가운데 사회의 멸시와 천대를 받아가며 사명감 하나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여 현실을 만들어 낸 위대한 복지의 달인이며 복지의 불을 밝혀준 모든 이들의 노고에 감사와 전하고 자신들의 몸을 돌볼 사이도 없이 힘겹고 나약한 이웃을 위하여 헌신해 오셨기에 오늘에야 사단법인이나와 당당하고 떳떳하게 인정받는 시설로서 사회 앞에 설 수 있음이 무엇보다 감사하고 긴 터널을 지나오느라 수고하신 모든 이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또 강 대표회장은 대회사에서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이웃은 더욱 많아지고 우리의 사명은 갈수록 힘들어지기에 뼈를 깎는 아픔을 각오를 피력하고, 그러기 위해 첫째 투명한 시설을 만들 것과, 둘째 사랑의 화생이 필수적이며, 셋째 인정 어린 봉사를, 넷째 모범적인 시설을 갖추는 데 각오가 필요함은 물론 오늘 모임이 여러분의 삶에 큰 활력이 되길 주문했다.

또 대표이사장 정재은 목사는 환영사에서 전국 개인운영신고시설을 운영하는 원장 및 임직원들이 얼마나 고생이 많은지, 열악한 시설운영에 보람이 되지 못하는 정부 기관장들에게 우리의 아픈 사연을 알리기 위해 참석했다며,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굴하지 않고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하기 위해 손과 발이 트도록 고생하신 분들의 노고를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다고 말

하고 국가나 사회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 할지라도 자부심과 끈기 있는 인내심으로 소명의식을 가지고 최악의 조건에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장 및 원장 등, 또한 시설의 종사자 여러분들이 소명이 있기에 이 일을 한 줄 믿는다고 말하고 용기를 잃지 말며 더욱 힘을 내어 대한민국의 복지가 세계최고의 복지가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국가 기관인 국회의장,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법조계 학계 또한 관계자들에게 이 시설 운영에 도움이 되는데 뜻을 모아 줄 것을 부탁했다. 이날 세미나를 주관한 한국개인운영신고시설협회는 2008년 10월 15일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단체이다. 동 시설협회는 2000년 6월에 의해 설립 됐으며, 처음에는 미신고시설들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불법 시설로 일컬어졌다.

하지만 전국의 미신고시설들이 협회(구, 한국민간복지시설협의회 중앙회)를 중심으로 수없는 세미나 및 간담회로 인해 2002년 조건부 시설설치, 2003년 사회복지사 양성교육 부활 및 양성, 2004년 보조기금 정부로부터 지원, 2005년 조건부 시설에서 신고시설로 전환, 2007년 개인운영 신고시설들에게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표창수여 등 수많은 일들을 해 왔다.

본 법인은 노인시설, 장애시설, 아동시설, 부랑인시설, 장기요양시설, 재가시설 등 개인이 운영하는 모든 시설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법인으로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본 법인이 지향하는 것은 전국산하 개인운영신고시설들이 원활히 운영하는데, 관리하며 시설장 교육 및 종사자교육에 중점을 두고 현 11개 지부를 설립하여 법인이자 5명(대표이사 정재은)과 법인이자 30명, 법인협회 임원 58명(대표회장 강재원 목사)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날 세미나는 최장 김태경씨가 개인운영 신고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향후 발전방향에 대하여 주제발표를, 명지대 고명석 사회복지학교수, 보건복지가족부 고은정 주무관, 전국회의원 정인봉 변호사, (사)한국개인운영신고시설협회 광동훈(순종) 운영이사가 지정토론자로 나서 토론을 이끌었다.

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아를 감추고 오직 내 안에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열정을 가져야 한다. 고 피력했다.

윤용섭 총재는 전주 샘물교회를 담임하고 있으며 색소폰 연주로 명성이 높다. 그는 또 한국 최초로 성가음반 전문회사를 경영하고 있으며, 특별한 달란트를 가지고 헌신을 다해 찬양사역에 힘쓰고 있다.

이날 윤 총재는 취임사에서 "나는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할뿐이요, 찬양은 예배를 준비하기 위한 단계가 아니라 예배 그 자체이기 때문에 찬양 또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비로써 경건하게 찬양을 올려드려야 한다"고 했다

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아를 감추고 오직 내 안에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열정을 가져야 한다. 고 피력했다.

윤용섭 총재는 전주 샘물교회를 담임하고 있으며 색소폰 연주로 명성이 높다. 그는 또 한국 최초로 성가음반 전문회사를 경영하고 있으며, 특별한 달란트를 가지고 헌신을 다해 찬양사역에 힘쓰고 있다.

이날 윤 총재는 취임사에서 "나는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할뿐이요, 찬양은 예배를 준비하기 위한 단계가 아니라 예배 그 자체이기 때문에 찬양 또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비로써 경건하게 찬양을 올려드려야 한다"고 했다

강신숙 목사 호사랑 음악회

기독교 연예인 목회자 부흥사 차유선교 협의회(이하~기연목부지선협) 대표회장 강신숙 목사는 지난 4월 4일 오전 11시 성남 천양교회에서 성남지역 독고노인 초청 호사랑 무료음악회를 열어 풍성한 불고기식사와 과일, 떡으로 어렵게 살고 있는 독고노인들을 즐겁게 했다.

이날 대표회장 강신숙 목사 사회로 진행된 1부 예배에 정중환 목사가 개회송 "성령 불이 붙게 하소서"를 찬양하고 박광한 목사가 설교를, 백경명 목사 축도로 마쳤다.

2부는 윤드보라, 정중환 목사 사회로 호사랑 음악회가 진행되어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날 강신숙 목사는 특별출연한 출연진들이 모금한 금일봉과 헌금을 전액 독고노인들을 위하여 써 달라고 전달해 경제가 어려운 이때 훈훈함을 더해 주었다. 독고노인초청 호사랑 음악회를 주관한 출연진은 아래와 같다.

대표회장 강신숙 목사, 정중환 목사, 임흥식 목사, 윤계순 목사, 박에스터 목사, 이순기 무용단, 박광현 목사, 김용남 목사, 신영숙 목사, 유한나 목사, 윤드보라 목사, 김현숙 전도사, 백경명 목사, 디모데 목사, 노균에 권사, 최기숙 목사, 장효상 목사, 김필화 전도사, 김성수 목사 등이다.

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아를 감추고 오직 내 안에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열정을 가져야 한다. 고 피력했다.

윤용섭 총재는 전주 샘물교회를 담임하고 있으며 색소폰 연주로 명성이 높다. 그는 또 한국 최초로 성가음반 전문회사를 경영하고 있으며, 특별한 달란트를 가지고 헌신을 다해 찬양사역에 힘쓰고 있다.

이날 윤 총재는 취임사에서 "나는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할뿐이요, 찬양은 예배를 준비하기 위한 단계가 아니라 예배 그 자체이기 때문에 찬양 또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비로써 경건하게 찬양을 올려드려야 한다"고 했다



제19회 사랑의 음악회 열려

윤용섭 목사 하나복음선교회 총재 취임



(사)하나복음선교회(대표회장 윤드보라 목사)는 지난 3월 31일(화) 오후 2시 서울 종로 백주년기념관 소강당에서 외국인근로자돕기 제19회 사랑의 음악회를 가졌다.

이날 1부 예배에 최정남 목사 사회로 진행되어 설교에 안기영 목사(선교회 본부장)가 맡았다.

이어 윤용섭 목사는 하나복음선교회 총재 취임을 가졌다. 그는 뜻을 같이한 많은 이들과 뜻을 같이하여 더욱 발전해 가는 선교회가 되기를 힘쓰겠다고 했다. 또 윤 총재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는 최고가 되

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아를 감추고 오직 내 안에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열정을 가져야 한다. 고 피력했다.

윤용섭 총재는 전주 샘물교회를 담임하고 있으며 색소폰 연주로 명성이 높다. 그는 또 한국 최초로 성가음반 전문회사를 경영하고 있으며, 특별한 달란트를 가지고 헌신을 다해 찬양사역에 힘쓰고 있다.

이날 윤 총재는 취임사에서 "나는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할뿐이요, 찬양은 예배를 준비하기 위한 단계가 아니라 예배 그 자체이기 때문에 찬양 또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비로써 경건하게 찬양을 올려드려야 한다"고 했다

예장(웨신)경천노회 제172회 정기노회



대한예수교장로회(웨신) 경천노회(노회장 장창운 목사)는 14일 서울 동대문구 회계 2동 은광교회(이원석 목사)에서 제172회 정기노회를 개최했다.

1부 회개예배에 노회장 장창운 목사 사회로 진행된 서기 전동웅 목사 기도회와 회의록서기 정재경 목사가 성경을 봉독하고 노회장 장창운 목사가 "더욱 더 깊은 곳으로"라는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이어 증경노회장 이원석 목사 축도로 마쳤다.

이어 증경노회장 심재호 목사 집례로 성찬식을 가졌으며, 3부 회무처리에 들어가 각 안건 토의를 가졌다

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아를 감추고 오직 내 안에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열정을 가져야 한다. 고 피력했다.

윤용섭 총재는 전주 샘물교회를 담임하고 있으며 색소폰 연주로 명성이 높다. 그는 또 한국 최초로 성가음반 전문회사를 경영하고 있으며, 특별한 달란트를 가지고 헌신을 다해 찬양사역에 힘쓰고 있다.

이날 윤 총재는 취임사에서 "나는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할뿐이요, 찬양은 예배를 준비하기 위한 단계가 아니라 예배 그 자체이기 때문에 찬양 또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비로써 경건하게 찬양을 올려드려야 한다"고 했다

디어스영성찬양신학 연구원 이전예배



디어스영성신학연구원(원장 이나단 목사)은 지난 3.27일 오전 11시 서울 성북구 전동 2동 510번지에 새로운 건물과 터전을 마련하고 이전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노승택 전도사가 찬양인도를 맡았으며, 교무처장 정요섭 목사 인도로 진행된 예배에 류찬순 목사가 기도를, 권경준 목사가 고전 13:13-을 봉독, 맥스원찬양선교단의 특송이 있었으며, 장대작 목사가 "사랑"이란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이어 브리스치 유찬양선교단의 봉헌 찬송과 최영애 목사가 봉헌기도를, 연구원장 이나단 목사가 학사봉독, (사)국제기독교문헌연합회 회장 이준철 목사가 권면을, 경제회복선교센터 총재 김희일 목사가 축사를 맡았으며, 이기삼 목사 축도로 마쳤다.

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아를 감추고 오직 내 안에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열정을 가져야 한다. 고 피력했다.

윤용섭 총재는 전주 샘물교회를 담임하고 있으며 색소폰 연주로 명성이 높다. 그는 또 한국 최초로 성가음반 전문회사를 경영하고 있으며, 특별한 달란트를 가지고 헌신을 다해 찬양사역에 힘쓰고 있다.

이날 윤 총재는 취임사에서 "나는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할뿐이요, 찬양은 예배를 준비하기 위한 단계가 아니라 예배 그 자체이기 때문에 찬양 또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비로써 경건하게 찬양을 올려드려야 한다"고 했다



“1구좌 1만원 후원 천사가 되어주십시오.”

농협 계좌 455030-56-005509 (예금주: 정기남)

The Jesus Times

www.JTNTV.kr

광 고 문 의

www.JTNTV.kr

지저스타임즈 등

다양한 채널을 가지고 있어서 홍보효과가 뛰어납니다. (베너광고, 팝업광고, 일반지면광고)

광고문의

광고국 : (02)407-6574 FAX : (02)763-0221

축 부 활 - 2009년 부활절 예수 다시 사셨네!

삶을 변화시키는, 글로벌시대 인재양성 및 복음화를 위한

학기적인 말씀축복 [전도집중 말씀집중 독서집중] 특별집회

부흥회 + 전도집회 + 재직세미나 + 교사세미나 + 수련회 효과



강사 김동기 목사(합동) 말씀사랑운동본부장

집 회 특 징

- 모든 전도 프로그램, 교회성장 프로그램에 날개를 달아줌.
- 말씀으로 무장할수 있어 성도들이 이단에 넘어가지 않음.
- 목회전반에 큰 활력을 받음(전도, 기도, 설교, 교육).
- 전도에 자질을 갖게 되며, 헌신, 충성의 사람으로 변화됨.

강 사 특 징

- ♥ 확실한 동기부여
- ♥ 열정과 감동이 있음
- ♥ 삶의 희망과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함

주관 : 말씀사랑운동본부
후원 : 지 저 스 타임즈
집회유치문의 : 041)904-0675
011-9119-7661 (직통)

전국 교회 기도원 집회, 전도 집회, 목회자 세미나, 교사세미나, 수련회, 각기관 특강
※ 집회를 초청해 주신 전국교회, 기도원, 각기관에 집회소요 강사를 드립니다.
다량으로 더 겸손히 열심히 기도원 준비하여 상가합니다.

말씀을 읽는 자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실패하지 않는다.

말씀으로 양육되고 성장하는 대광교회로 오십시오!!

예 배	시 간	장 소	비 고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30	본 당	성경강해
주일 1부예배	주일 오전 7:30	본 당	
주일 2부예배	주일 오전 9:00	본 당	열린예배
주일 3부예배	주일 오전 11:30	본 당	
주일 4부예배	주일 오후 2:00	본 당	특별예배로 들릴 수 있음
주일 5부예배	주일 오후 4:00	본 당	청년예배
수요기도예배	수요일 오후 9:00	본 당	청년기도회
각구역별예배	각 구역별 지정시간	각 구역별 요구구장	매일 10시 15분은 연합예배

주 일 학 교 예 배 안 내	부 서 별	시 간	장 소	대 상
유 치 부	주일 오전 11:30	본당 지하 1교육관	취학전 아동	
유 년 부	주일 오전 9:00	본당 지하 1교육관	초등학교 1-3학년	
소 년 부	주일 오전 9:00	본당 교육관	초등학교 4-6학년	
중 등 부	주일 오전 11:00	별관 교육관	중학생 및 통급연원	
고 등 부	주일 오후 9:30	별관 교육관	고교생 및 통급연원	
청 년 2 부	주일 오후 4:00	본 당	18~24세 미혼	
청 년 1 부	주일 오후 4:00	본 당	25세 이상 미혼	

대한예수교장로회 대 광 교 회 Presbyterian Church

451-061 안양시 동안구 관왕동 1409-10
TEL. 031-384-6826



서울예일신학 (사명자 수시모집)

- 신학과 - 사명(은사)자 학력/나이제한없음
- 연구원 - 신학교 졸업자(남,녀 목사안수희망자)
-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사 2급)
- 학점운영제, 학위과정(학사,석사,박사)운영

www.syeil.com
전 화 02)2293-0045
H · P 010-7405-9191

장기요양기관(행복의집) 가족처럼 어른신(한자)를 모십니다 (등급판정-1급-3급자환영)

www.1004tv.net
전화 033)541-0687, 010-7405-9191

대한예수교장로회(웨신) 경기노회

노회장 송주창 목사 외 노회원 일동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삼화1리 1071-1
Tel. 031-356-3997 016-769-3997

대한예수교장로회(웨신) 경인노회



노회장 김승년 목사 외 노회원 일동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571-1 보경빌딩 2층
TEL. 031-976-8261
H · P 011-2972-7859

대한예수교장로회(웨신) 수원노회

노회장 김영배 목사 외 노회원 일동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587-35 한양빌라 7동 201호
Tel. 031-446-0460 018-282-0460



축 부활 “예수 다시 사셨네” 웨신총회



총회장 장영기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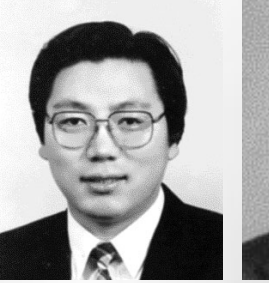


부총회장 정기남 목사

2009년 부활절
총회장 장영기 목사 외 임원 일동



서기 신연창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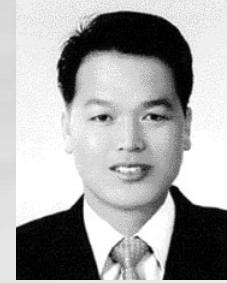
부서기 최은수 목사



회의록서기 이재갑 목사



부회의록서기 백승대 목사



회계 김태곤 목사



부회계 정규남 목사



총무 김병수 목사

웨신총회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5동 442-105(201호)
전화 02)835-2607 팩스 02)835-2628 E-mail : weshinch@korea.com

대한예수교장로회 목포만나교회 / 목포신학교

축 부활

담임목사 조광표



(530-350) 전남 목포시 연산동 1236-4번지
전 화 : 061)274-6461 / 학장실 : 061)242-1617
자 택 : 061)274-1808 / 핸드폰 : 011-631-1977

대한예수교장로회(웨신) 남부노회

축 부활



노회장 조광표 목사 외 임원일동

남부노회 : 전남 목포시 연산동 1236-4번지 061)274-1808
노회장 조광표 목사 011-631-1977 / 서기 김상호 목사 010-5411-5028

축 부활 - 2009년 부활절 예수 다시 사셨네!

대한예수교장로회(웨신)
남 서 울 노 회



노회장 장한국 목사외
노회원 일동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748 대림프라자 (고하5) 7층
전 화 031-424-7612
010-4436-7060

대한예수교장로회(웨신)
경 천 노 회



노회장 장창윤 목사외
노회원 일동

서울시 구로구 구로5동 530-22
전 화 02-862-3181
010-5678-9950

대한예수교장로회(웨신) 수도노회



노회장 김춘택 목사 외
노회원 일동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과안동69-12
Tel. 032-342-0259 011-4166-2307

대한예수교장로회(웨신) 중앙노회



노회장 정일량 목사 외
노회원 일동

인천시 남동구 만수5동 883-8
Tel. 032-467-3738 010-3733-9887

대한예수교장로회(웨신) 한서노회



노회장 이재갑 목사 외
노회원 일동

서울시 노원구 상계2동 389-50
Tel. 02-938-3521 016-228-3521

대한예수교장로회(웨신) 한성노회



노회장 전명철 목사 외
노회원 일동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97-2
Tel. 032-346-5488 010-4945-3927

대한예수교장로회(웨신) 강동노회



노회장 정규남 목사 외
노회원 일동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2동 42-54 203호
Tel. 031-251-0697 010-3136-0697

대한예수교장로회(웨신) 강원노회



노회장 이명택 목사 외
노회원 일동

강원도 동해시 천곡동 1051-2
Tel. 033-533-1142 011-9969-0691

대한예수교장로회(웨신) 경성노회



노회장 김태곤 목사 외
노회원 일동

서울시 구로구 구로2동 725-9
Tel. 02-839-9198 010-9492-1770

대한예수교장로회(웨신) 성경노회



노회장 이기식 목사 외
노회원 일동

서울시 금천구 시흥5동 920-46호
Tel. 031-374-4036 016-240-4713

대한예수교장로회(웨신) 중경노회



노회장 한현석 목사 외
노회원 일동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54 파크타운 124동 2802호
Tel. 031-771-0691 017-345-2705

대한예수교장로회(웨신) 서울노회



노회장 허성인 목사 외
노회원 일동

서울시 은평구 수색동 376-5
Tel. 02-963-0377 018-270-3462

대한예수교장로회(웨신) 중부노회



노회장 고영전 목사 외
노회원 일동

서울시 중랑구 묵2동 244-107
Tel. 02-948-6461 011-9115-6461

대한예수교장로회 빛과소금교회



노회장 이재갑 목사 외
성도 일동

서울시 노원구 상계2동 389-50
Tel. 02-938-3521 016-228-3521

꿈대로 되는 교회

초대교회의 역사와 기적과 부흥을 재현하는 교회

확실한 비전과 목회철학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강한 리더십으로 목회에 임하고 있는 박정엽 목사. 그는 국내외 선교사역에도 철저한 계획과 기도로써 힘쓰고 있다. 교회로 들어서자 강단을 비롯해서 내부 곳곳이 한마디로 예술이다. 조각가가 심혈을 기울려 완성해 놓은 듯 너무나 아름답다. 게다가 “꿈대로 되는 교회” 『초대교회의 역사와 기적과 부흥을 재현하는 교회』라는 표어가 시선을 사로잡는다.

서울 강서구 화곡4동에 자리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효신교회는 담임 박정엽 목사의 파워 넘치는 영성과 기도로 뜨는 교회로서 왕성하게 성장하고 있는 교회이다. 대구가 고향인 박정엽 목사, 교단은 합동정통, 현 로템장학회 회장이며, 뉴욕대학원을 거쳐 노스캐롤라이나 기독교 교육학 박사이다. 그 외에도 한.중 신학연구원 원장, 어복총신교수, 합동총신교수이며 전 기독대학교교수를 역임했고, 현 경인 부흥사 협의회 수석상임회장을 맡아 크게 사역하고 있다. 또한 국내외적으로 집회를 인도하며, 집회를 통해 많은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박정엽 목사는 본지와와의 인터뷰에서 로템장학선교회에 대해 그 취지를 말한다. ‘목회사역 중에 개척의 여러가지 환경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목회자 자녀들이 자유롭게 공부할 수 없었던 그 열악한 여건들을 접하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고 기도하는 중에 소명을 받아 저 아이들에게 학문을 계속할 수 있도록 후원회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발족하게 된 선교회입니다. 한국엔 대학등록금이 나, 교육자원의 경제력이 부족하면 실력이 있어도 진학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육환경과 영어권 제도에서 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필리핀을 선택, 저렴한 교육으로 공부할 수 있게 하는 것이며, 그 후에도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여 선진국으로 유학을 보내고 석사, 박사 학위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로템장학선교회의 사역입니다.

후원은 비전과 꿈을 가진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는데 있습니다. 현재 9년 동안 많은 중, 고, 대학생들이 이 과정을 마치고, 여러 나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템선교회의 사역은 경제적인 많은 후원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은 편입니다. 현재 필리핀 로템에는 마닐라 마티카 시에 목회자 자녀들이 6명이 거주하면서 공부



하고 있습니다. 이 장학선교회는 VIP 선교이기 때문에 전공과목들이 의대, 치대, 공대, 영어교육, 생명공학 등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 장학은 후원이 없이 오직 효신교회에서 한 사람이 매월 1만원에서 3만원의 후원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VIP 선교란 우리가 지금까지 오지 선교에만 전력했기 때문에 밀 빠진 독에 물을 붓듯이 끝이 없었고, 커다란 성과없이 퍼다 주는 선교에 주력했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VIP선교 즉 리더들을 만들어 그 나라 리더(지도자)들을 상대로 의술, 문화, 예술, 건축, 정치, 등으로 선교하게 될 때 더 많은 극대화 되는 선교를 하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효신교회를 담임하게 된 계기는 ‘청년시절에 원치 않은 간병인 간경화, 간암, 간디스토마 등으로 사형선고를 받아 시한부로서 병원에서는 불가 몇 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강력한 영적 치유를 받은 후 소망을 받고 지금까지 목회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개척의 많은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에 5시간 이상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작은 자를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효신교회는 기도 + 교육 + 영성 + 선교 + 헌신으로 부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육목회와 영성운동을 접목하여, 6년 동안 미국과 한국을 오가면서 소그룹 + 셀 + 지역환경 + 기도 = 효신교회로 교육영성을 통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리더로 세우는 영적 슬로건을 걸고 사역하면서, 중, 고 등부에 전격한 결과,

현재 150명 이상이 넘는 중, 고등부와 30명이 넘는 리더들로 구성되어 그동안 리더로 과정을 다 마친 청년 리더들이 매주 목요일마다 리더교육으로 효신교회는 교육영성으로 그 사명을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효신교회는 초대교회로 돌아가라는 강력한 성령의 음성을 들었으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계복음화 비전에 헌신하라는 성령의 후원으로 교회는 비전과 꿈을 품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영적전략으로 교회는 사람을 양육하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교회로서 복음으로 준비된 평신도 리더들을 통해 세상 속에 거룩한 비전의 사람들을 파송하고 세워가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또 축제와 성령의 기쁨이 넘치는 초대교회의 역사와 기적과 부흥을 재현하는 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축제가 있는 효신교회! 전통적인 바탕위에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는 역동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효신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삶의 회복과 미래를 향한 비전으로 가정행복을 기대감을 위한 회복과 치유가 넘치는 예배를 통해 그 역동적인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박정엽 목사는 자신의 목회철학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

1) 예배 회복입니다.

예배회복은 시대적인 요구이요, 하나님

의 요구이기도 합니다. 현대교회는 은과 금은 있어도 예수가 없는 인본주의 예배로 인해 위기와 감동으로 부흥의 침체가 온 것입니다. 효신교회는 이를 대처하기 위해 교회는 24시간 오픈된 기도를 통해 능력사역을 선포하고 사단과 싸워서 포로된 자, 열매인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각종 질병과 시험과 상처로 침체된 신앙을 회복시켜 새로운 신앙의 비전을 얻게 하기 위해 영적전쟁을 선포하면서 역동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특히 예배회복을 위해 365일 새벽총집회를 통해, 새벽기도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예배회복을 위해 초



대교회는 말씀(word), 기사와 이적(works), 예배(worship) 등 3요소가 균형잡힌 공동체였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 이 세가지 현상이 나타나도록 영적전적인 예배를 준비합니다.

2) 선교입니다.

선교는 주님의 지상명령인 만큼, 철저하게 준비하여 목회사역초기부터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고, 특히 교회를 세우는 일보다 학교를 세우는 선교에 주력하여 중국과 필리핀 인도, 인도네시아로 학교를 세우고, 현재 필리핀에서는 앵겔레스에 200명 넘는 곳에 학교를 세워 현재 현지인 1300명의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정규 학교이기 때문에 정식교사 교장 등록금 등, 문교부 교제를 사용하고 양호실, 식당, 과학관, 영화관, 체플실, 음악실, 인터넷 등, 다양한 교육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필리핀 비스토 고등학교와 초등, 전문대학으로 제단승인을 받아 운영하던 중, 3개월 전에 문교부로부터 대학인가를



받아서 현재 진행중입니다. 필리핀에서는 가장 규모가 큰 사리고등학교로 발전한 것입니다. 효신의 선교는 100년을 바라보면서 교육기관을 세워, 인재를 양육하고, 그중에 30% 정도의 복음화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학교선교에 주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선교는 목회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효신의 최종적 선교는 의과대학을 세우는 데 있습니다. 한국의 연세대학처럼 종합 의과대학을 세우는 일이 마지막 선교의 사명으로 알고, 후원자를 보내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3) 어린이 선교입니다.

효신교회 차세대 주일학교는 다음 세대 하나님 나라를 이룰 차세대를 발굴과 기도 및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양육, 훈련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1. 주특기 개발을 통해 성령이 주시는 아름다운 꿈과 비전을 심어주고,
2. 교사와 친밀한 나눔과 내적치유로 잘못된 가치를 채우는 차별화된 교육을 통해 세상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리더로 세워지기 위한 청소년 사역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리더로 쓰임 받는다! Think big, Talk big, Take big : 크게 생각하고, 크게 말하고, 크게 성취하라! 우리는 미래를 가리지 않는다. 매 월, 절기 및 교회 운영 방침에 맞는 주제를 정해 ‘특색 있는 예배’로 드린다. [내용] 전통예배 / 리더예배 / 교사예배 / 찬양&간증예배 / 드라마 or 미디어예배 / 특별행사

5) 치유사역입니다.

효신교회는 강력한 위대한 치유사역에 그 사명을 다하여 치유사역 공동체를 세워 예배를 통해 성령의 강력한 치유사역으로 죄와 사망과 질병의 3대 고난으로부터 벗어나도록 영적 자유함을 위한 치유사역의 현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결론적으로 저희 효신교회는 효신비전



거룩한 리더로 쓰임 받는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는! 예배드린다! 꿈이 있는 나는! 건축한다! 순종하는 나는 전도한다. 자신들의 꿈과 은사를 발견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 매 월, 절기 및 교회 운영 방침에 맞는 주제를 정해 ‘특색 있는 예배’로 드린다.

내용은 전통예배, 교사예배, 드라마 or 인형극예배, 특별행사 등입니다.

4) 교육입니다.

파워웨이브는 효신교회 차세대 교육의 심장부로,

사역과 사명선언을, 영적전쟁을, 능력사역전쟁, 치유사역, 비전선언, 등을 목회철학으로 전 교우들이 훌륭하게 능력이 있으며 기도가 충만합니다. 각 분야에서 열심을 다하고 사역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대교회의 역사와 기적과 부흥을 재현하는 교회

꿈대로 되는 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효신교회

예 배 안 내

예 배	요 일	시 간	장 소
주일1부예배	주 일	오전 11:00	본 당
오전동시예배	주 일	오전 11:00	제2성전
새벽기도회	매 일	새벽 4:40	제2성전
주일오후예배	주 일	오후 5:30	본 당
수요예배	수요일	오후 7:30	본 당
금요철야예배	금요일	오후 9:30	본 당
월요비전컴퍼런스	월요일	오후 8:30~10:30	제2성전
유치부	주 일	오후 1:00	유치부예배실
주일학교	주 일	오후 1:00	제2성전
중고등부	주 일	오후 2:00	본 당
청년부	토요일 주 일	오후 7:00 오전예배후	제2성전 본 당
리더교육	화요일	오후 7:00	세미나실

찾아오시는 길

까지산역 4번 출구(KTF 앞) 03번 마을버스 탑승 공작 세탁소 앞 하차
목동역 3번 출구 6628, 6630 성석교회, 남부시장 하차(도보로 10-15분)

6628, 6630, 6716, 6714, 6623번 성석교회 하차 (도보로 10-15분)

서울시 강서구 화곡4동 465-1 대표전화: 02)2644-1621

대표전화 02)2644-1621

주소: 서울시 강서구 화곡4동 465-1

http://hyosin7.com E-mail: park7300@hotmail.com

담임 박정엽 목사



전영춘 목사

6대 존속신앙으로 이름없이 빛도없이 섬기는 자세로 목양일념

전영춘 목사 2009년도 부흥성회

● 약력

- * 1974년 성남시 상대원 성원교회 설립(집사)
- * 1984년 인제군 기린면 현4리 은혜교회 설립(장로)
- * 1973년 신촌장교회 계약신학 1년 수료
- * 1985년 예정합동개혁 총신 졸업
- * 1992년 예정합동보수 총신학학 단기 졸업
- * 1995년 춘천 강원한사랑교회 설립
- * 2000년 춘천 강림교회 설립
- * 인제군 교정협의회 회장 역임
- * 인제군 성남기린면 교역자 연합회장 역임
- * 춘천지역 총목회 초대회장 역임
- * 서울 종로4가 인의동 국제복음성교회 총재 역임
- * 예정보수합동총회신론 이사장 역임
- * 총회신학교 총 동문회장 역임
- * 총회신학교 부총회의회 회장 역임
- * 독립문총신신학교 총본부장(현)
- * 독립문총신 경인 교수(현)
- * 보수총회신학전임교수 역임
- * 민주경찰 복음신문 사장(현)
- * 지저스타임즈 신론 이사장(현)
- * 예술선교신론 목사 성경의 문 해답
- * 한국노숙자 선교연합회 본부장(현)

■ 출간

신구약 선전집 출간 / 심전집 출간
돌소리 출간 / 황금예회집 출간

1월 4일 주일(낮) 예배 서울동심장교회 담임 전봉화 목사
11일 주일(낮) 예배 서울독립문총신대본부교회 담임 정병훈 총장
15일 주일(낮) 예배 서울기독교회관 2층 대강당 애국투사 복음화집회
대회장 문수영 목사
19일 주일(낮) 예배 춘천 주성원교회 담임 김병철 목사
26일 -29일 파주 금촌벤엘기도원 담임 권부할 목사 원장 장월화

2월 1일 주일(낮) 서울 동심장교회 담임 전봉화 목사
8일 주일 오후 서울 독립문총신대본부교회 담임 정병훈 총장
9일 서울 여전도회관 대강당 월드미션선교연합회 강신숙 목사
9일 -12일 목요일 밤 성남시 기독교예술공공체 사랑의교회 담임 김성수 목사
15일 주일 춘천 주성원교회 담임 김병철 목사
22일 주일 오후 예배 설교 서울독립문총신대본부교회 담임 정병훈 총장
24일 -26일 전남 해남 육천 거저씨공동체 선교원 집회 원장 장상연 목사

3월 1일 주일(낮) 서울동심장교회 담임 전봉화 목사
2일 오후 2시 민족투사복음화교회 설교 100주년기념관 대강당
대표회장 문수영 목사
8일 주일 사대문 독립문총신대본부교회 오후 예배설교 담임 정병훈 총장
15일 주일 춘천 주성원교회 주일 낮 설교 담임 김병철 목사
23-26일 파주 금촌벤엘기도원 집회인도 담임 권부할 목사 원장 장월화
27일 오후 2시 민족투사복음화교회 설교 대표회장 문수영 목사
29일 주일 춘천 주성원교회 주일 낮 예배 설교 담임 김병철 목사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30분 독립문총신대신대원 강의

4월 5일 서울 동심장교회 주일 낮 예배설교 담임 전봉화 목사
10일 서울종교공회 오후 집회인도 양현 목사 선교회
12일 주일오후 7시 춘천시 중앙시장 강북성결교회 1일부흥회 인도
담임 최예석 목사
19일 주일 오후 예배설교 독립문총신대본부교회 담임 정병훈 목사
20일 12시 호사랑 노인잔치성회설교 상남 대표회장 강신숙 목사
29-30일 파주 금촌벤엘기도원집회인도 담임 권부할 목사 원장 장월화
30일 부천시 삼신체육관집회 1일설교 대표회장 유한나 목사

5월 3일 주일 낮 설교 서울동심장교회 담임 전봉화 목사
10일 주일 오후 예배 서울독립문총신대본부교회 담임 정병훈 목사
19일 오후 1시 목포교도소 전 재소자 1300명 집회 담당 김정래 목사
25일 -28일 파주 금촌벤엘기도원 집회 담임 권부할 목사 원장 장월화

6월 22일 -25일 파주 금촌벤엘기도원 집회 담임 권부할 목사 원장 장월화
매주 월 오후 2시 30분 독립문총회 총신대신대원 강의
매월 격주 주일 오후 낮 예배설교 독립문총신대본부 교회 담임 정병훈 총장
매월 첫 주일 낮 예배설교 서울동심장교회 담임 전봉화 목사
매월 마지막 주일 낮 예배설교 춘천 주성원교회 담임 김병철 목사

7월 27일 -30일 파주 금촌벤엘기도원 집회인도 담임 권부할 목사 원장 장월화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30분 독립문총신 신대원 강의
격주 주일 오후예배 설교 독립문총신본부교회 담임 정병훈 총장
매월 첫 주일 낮 예배설교 서울동심장교회 담임 전봉화 목사

8월 24일 -27일 파주 금촌 벤엘기도원 집회 담임 권부할 목사 원장 장월화
매주 월 오후 2시 30분 독립문총신 신대원 강의
매월 격주 주일 오후 예배설교 독립문총신대본부교회 담임 정병훈 총장
매월 첫 주일 낮 예배설교 서울동심교회 담임 전봉화 목사

9월 21일 -24일 파주 금촌벤엘기도원 집회 담임 권부할 목사 원장 장월화
매주 월 오후 2시 30분 독립문총신 신대원 강의
6일 주일 낮 예배설교 서울동심교회 담임 전봉화 목사
마지막 주일 낮 예배설교 춘천 주성원교회 담임 김병철 목사

10월 26일 -29일 파주 금촌벤엘기도원 집회 담임 권부할 목사 원장 장월화
매주 월 오후 2시 30분 독립문총신 신대원 강의
매월 격주 주일 오후예배 독립문총회신학교본부교회 담임 정병훈 총장
첫 주일 낮 예배설교 서울동심교회 담임 전봉화 목사

11월 23일 -26일 파주 금촌 벤엘기도원 집회 담임 권부할 목사 원장 장월화
매주 월 오후 2시 30분 독립문총신 신대원 강의
매주 첫 주일 낮 예배설교 서울동심교회 담임 전봉화 목사
매월 격주 주일 오후예배 설교 독립문총신대본부교회 담임 정병훈 총장

12월 14일 -17일 파주 금촌벤엘기도원 집회 담임 권부할 목사 원장 장월화
첫 주일 낮 예배설교 서울동심교회 담임 전봉화 목사
매월 격주 주일 오후예배 설교 독립문총신대본부교회 담임 정병훈 총장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 936 초록지붕APT 102동 305호 TEL.(033)251-9424 H.P 010-5371-6265 E-mail: hoh-55@hanmail.net

축 부활 예수 다시 사셨네

대한예수교장로회
빌라델비아교회
담임 심재호 목사

서울 노원구 상계3동 98-199 정진빌딩 4층
Tel. 02-951-4331, 935-4611
H · P 010-6350-4611

축 부활 예수 다시 사셨네

대한예수교장로회(웨신)
미주노회
노회장 정승룡 목사 외 노회원 일동

2836 W.8th st. #101
Los Angeles, CA 90005
Tel. 213-365-2915
213-200-2592

세계최초 칼라복사기 200만원대 출시기념! 100대 한정 판매 실시 ₩2,990,000 (A3, 20매)



COLOR 252/352
■ 분당 컬러, 흑백 25/35매 고속출력
■ 8가지 기능을 1대로 OK
■ RADF, 팩스, 피니셔는 옵션



COLOR 203/200
■ 분당 컬러, 흑백 20매 고속출력
■ 8가지 기능을 1대로 OK
■ RADF, 팩스, 피니셔는 옵션



메직칼라 2490MF

- 살아있는 생생한 컬러 색감
 - _ 2400×600dpi의 인쇄 / 복사 해상도
 - _ 정밀하고 선명한 인쇄 품질의 simitri 토너
 - _ 편리하고 경제적인 솔루션
 - _ 저렴한 유지비(4.50매 고품질 토너)
 - _ 흑백20매, 칼라5매의 분당 인쇄속도
 - _ 월 권장 출력량 35,000매의 튼튼한 구성
 - _ PC없이 직접 사진 출력
 - _ FAX 기본기능
- 다이렉트 포토 프린트



DP-3217P

- 분당 50-180매의 초고속 인쇄
- 반 영구적인 뛰어난 내구성
- 고효율, 저비용(1장 1원에 도전)
- 고해상도 사진/문자 인쇄
- PC 인터페이스 기본 장착

- 8가지 기능을 한대로!
- 모든 부서 인쇄물을 단 한대로 ok!



www.jubo114.com

(주)영광기업 대표이사 정학영 장로
010-5779-0691

주보 인쇄기 보급 5,000대,
전자종 디지털 칼라 주보 복합기 1000대 기록 달성!
영광기업을 사랑해주신 교회와 목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접지기 · 중철기



중철제본 & 접지기

- B5-A3까지 중철제본 · 접지1장
이상의 주보, 교재, 책자 등 20매
80페이지 가능

주보접지기

- 2, 3, 4단 주보 한번에 접지 접히는
간격 조절 가능 분당 120매 접지



주식회사 영광기업
Glory Enterprise Co., Ltd.

종로점시장
서울시 종로구 호세동 51-3(100주년기념관 앞)
Tel. 02)762-6572 Fax. 02)764-5893

전국 어디서나
1588-0691

본사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547-9 영광빌딩
Tel. 02)2065-1004 Fax. 02)2065-1005

2009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Korea Sparkling
http://floriotopia.or.kr | http://flower-expo.kr
*정부 · AIPH 국제공인박람회

2009안면도국제꽃박람회



꽃, 바다 그리고 꿈
2009 안면도국제꽃박람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Flower

2009. 4. 24(금) ~ 5. 20(수)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꽃지 · 수목원

후원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산림청, 농촌진흥청, 태안군, AIPH(국제원예생산자협회), 한국관광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중앙회, (사)한국화훼협회,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입장권 예매처] · 농협 : 1588-2100 · SC제일은행 : 1588-1599 · 하나은행 : 1588-1111 · 인터넷 : 인터파크 http://ticket.interpark.com

